

2021 한국 富者 보고서

Korea Wealth Report 2021

2021.11

황원경 | 김진성 | 손광표

KB 금융지주 | 경영연구소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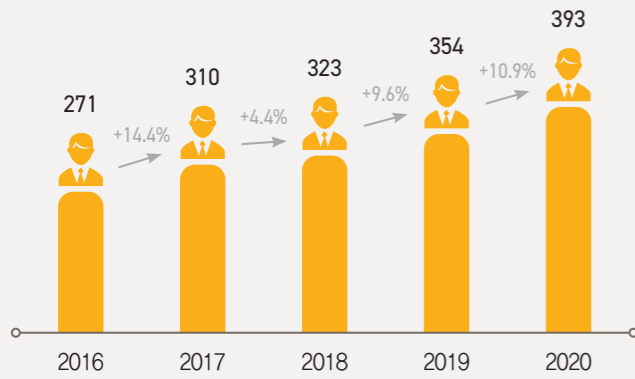
I. 한국 부자 현황	07
01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규모	08
02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12
II. 부자의 투자 행태	17
01 부자의 투자 성향	18
02 부자의 투자 행동	20
III. 부자의 향후 투자	27
01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28
02 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32
IV. 부(富)의 성장	37
01 부의 기준	38
02 부의 원천	40
03 부의 성장 동력	42
V. 이슈① 부자의 기준	47
01 부자의 자산 기준	48
02 부자의 자산외 기준	52
VI. 이슈②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57
01 한국 준부자 현황	58
02 한국 준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62

2021 한국 富者 보고서

Snaps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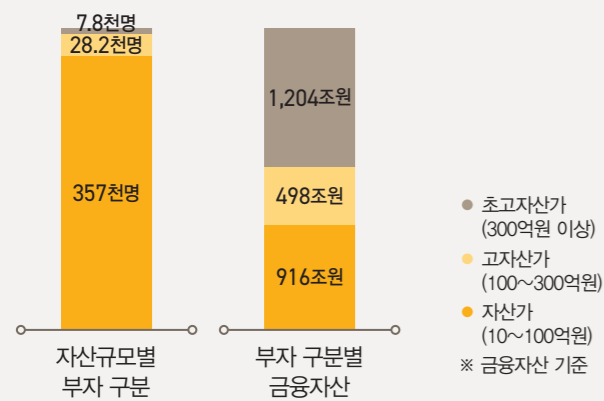
한국 부자 수 (단위: 천명)

한국의 부자는 2020년말 기준
3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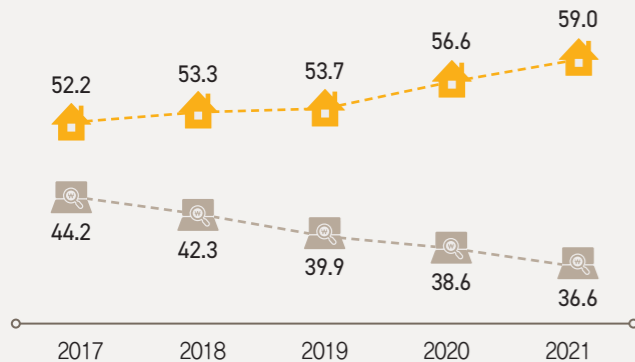
자산 규모별 부자 구분

한국 부자 중 초고자산가는 7천 8백 명,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204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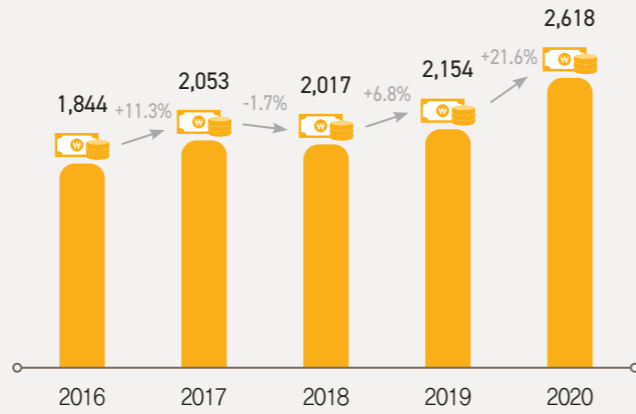
총자산 구성비 (단위: %)

부동산자산 59%, 금융자산 36.6%로 구성,
금융자산 비중 지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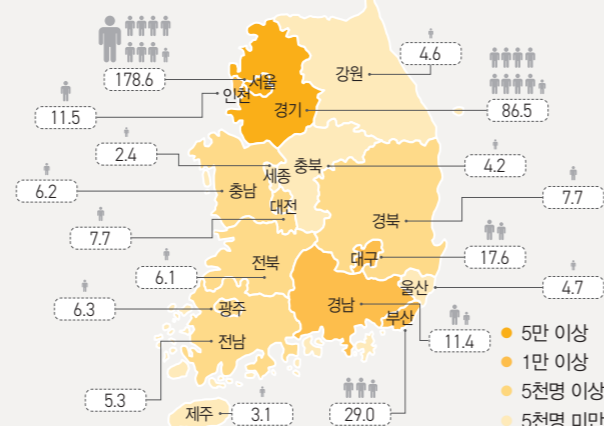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자산 규모 (단위: 조원)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은 2020년말 기준
2,618조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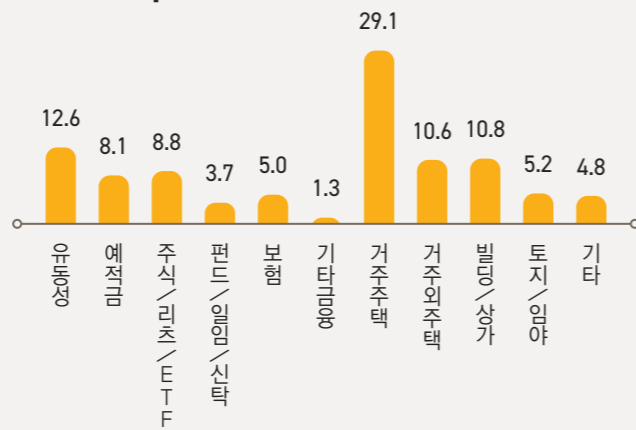
지역별 한국 부자 수 (단위: 천명)

한국 부자는 서울 45.5%, 경기 22%, 인천 2.9%로
수도권에 70.4% 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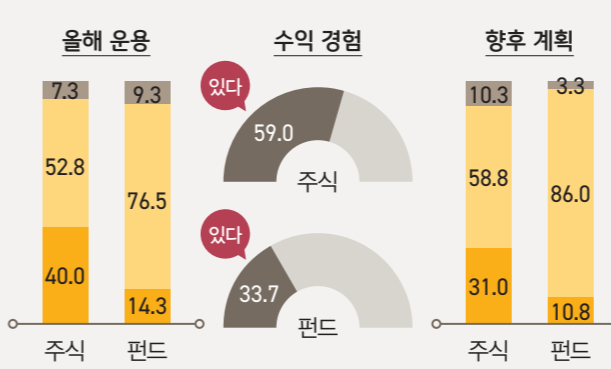
총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총자산 중 비중이 가장 큰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29.1%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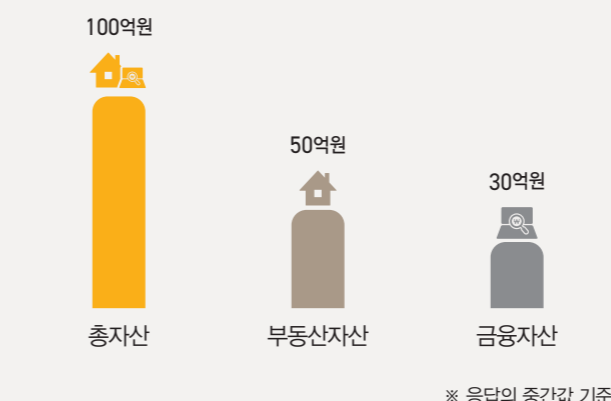
주식, 펀드 운용과 향후 계획 (단위: %)

부자 중 59%가 올해 **주식 수익** 경험
향후 31%가 주식투자 **확대**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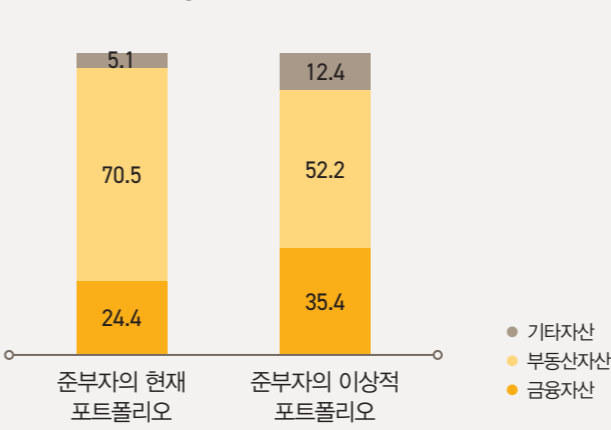
한국 부자의 부(富) 기준

부자의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부동산자산 50억원, 금융자산 30억원



준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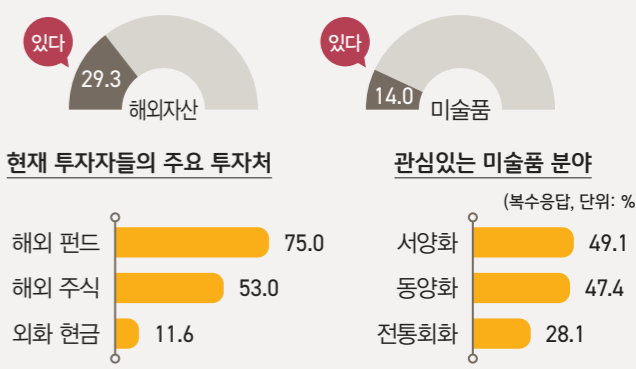
준부자의 이상적 포트폴리오는
4(금융자산) : 5(부동산자산) : 1(기타자산)



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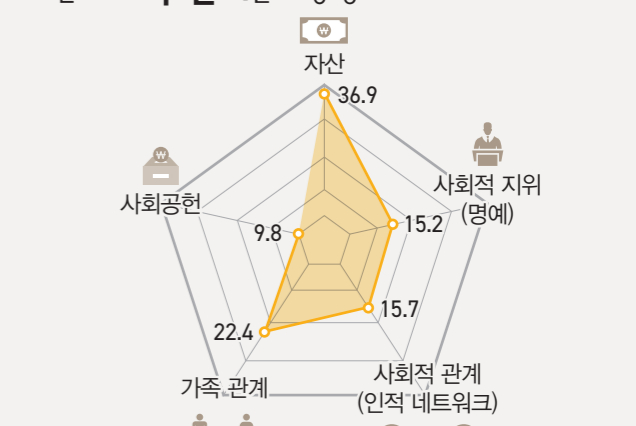
부자 중 29.3%가 **해외자산**,
14%가 **미술품**에 향후 투자할 계획

향후 투자 의향 (단위: %)



부자의 조건별 중요도 (단위: %)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조건**은
자산외 **가족 관계**를 가장 중요시



준부자의 자산관리 관심사 (복수응답, 단위: %)

준부자의 3대 자산관리 관심사는
부동산 투자, 경제동향 정보, 금융상품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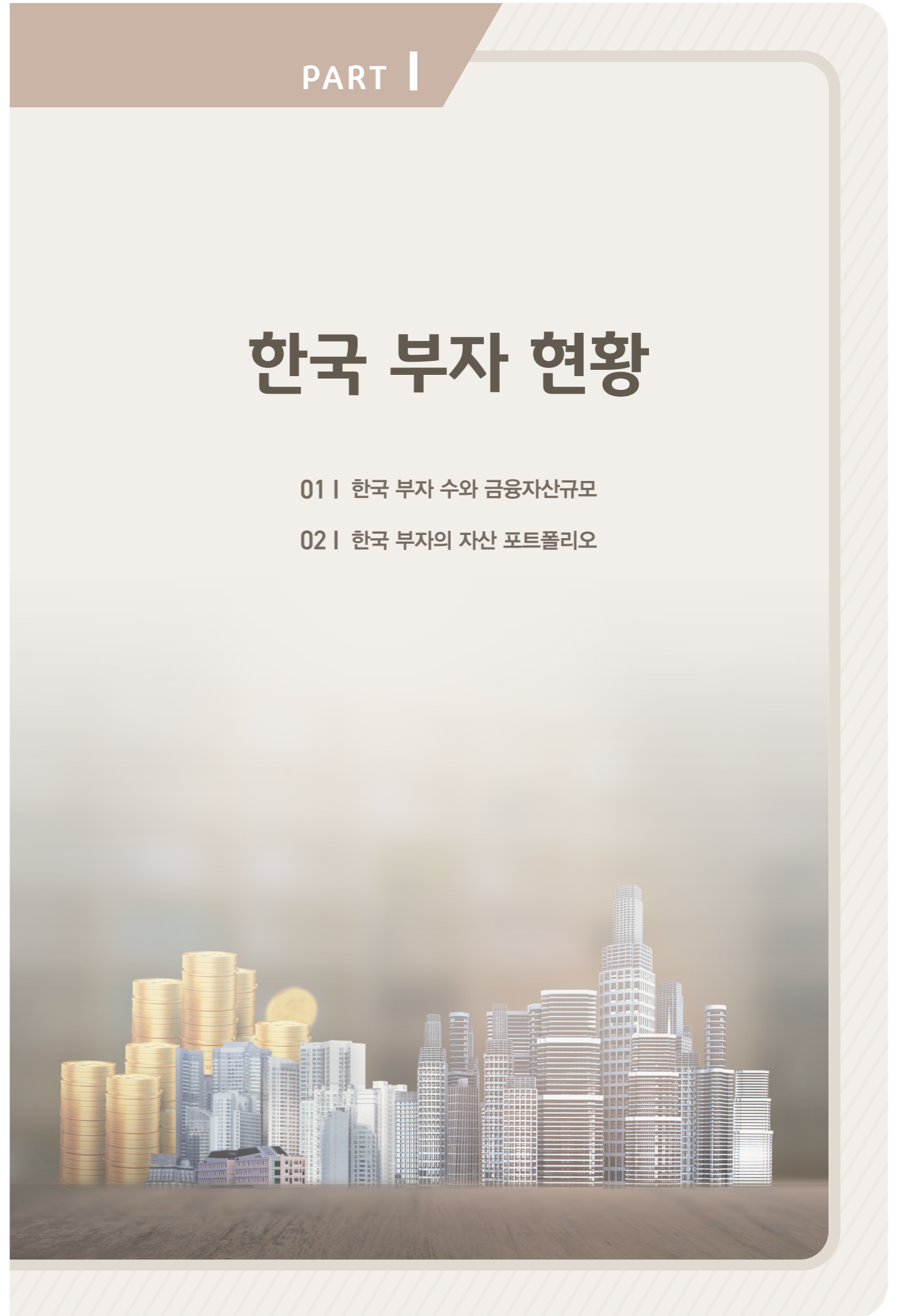
한국 부자 현황

01 |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규모

02 |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 〈한국 富者 보고서〉는 2011년부터 매년 금융자산(현금 및 예적금, 보험,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에 예치된 자산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한국 부자’로 정의하며, 한국 부자 현황과 자산 운용 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1 한국 富者 보고서〉 제1부 제1장 ‘한국 부자 현황’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통계 그리고 KB금융 고객 데이터 등을 이용하여 KB경영연구소의 추정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입니다.
- 〈2021 한국 富者 보고서〉 제1부 제2장 이후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전국 자산가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 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자산 운용 행태, 금융 인식과 투자 니즈 등을 설문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본 보고서 세부 내용은 KB금융그룹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01 한국 부자 수와 금융자산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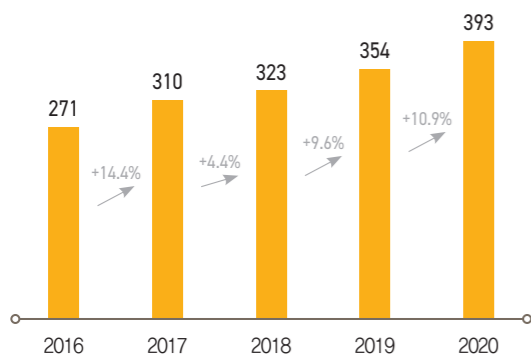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39만 3천 명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 부자의 금융자산은 주가지수 급등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했다**”

본 보고서에서 말하는 ‘한국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한다. 한국 부자는 2020년 말 기준 39만 3천 명으로 2019년 말 35만 4천 명 대비 3만 9천 명이 증가했다. 전체 인구에서 한국 부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0.76%로 2019년 대비 0.07%p 상승했다.

2020년 한국 부자 수는 2019년 대비 10.9%p 증가하며 2017년 14.4%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코스피지수가 2019년 말 2,198에서 2020년 말 2,873로 30.8% 급등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부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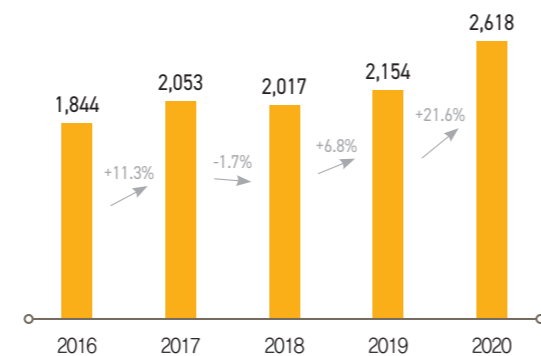
주가지수의 급등으로 부자의 금융자산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말 기준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금융자산은 2,618조원으로 2019년 대비 21.6% 증가하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

그림 01 한국의 부자수 추이 (단위: 천명)



주) 부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개인

그림 02 한국 부자의 금융자산 추이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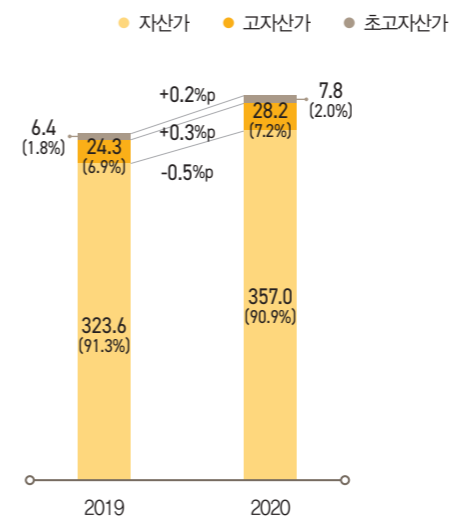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7,800명, 보유 금융자산은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이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를 좀 더 세분화하여 금융자산 10억원~100억원 미만 ‘자산가’, 100억원~300억원 미만 ‘고자산가’, 300억원 이상 ‘초고자산가’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부자의 90% 이상은 자산가에 해당하며, 7.2%인 2만 8천 명은 고자산가, 2.0%인 7,800명은 초고자산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초고자산가는 전체 인구의 0.015%를 차지한다.

자산가, 고자산가, 초고자산가가 보유한 금융자산규모는 2020년 말 기준 각각 916조원, 498조원, 1,204조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국 전체 가계 금융자산(4,280조원)의 각각 21.4%, 11.6%, 2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한국 부자의 1인당 평균 금융자산은 66.6억원이며 자산가 25.7억원, 고자산가 176.7억원, 초고자산가 1,55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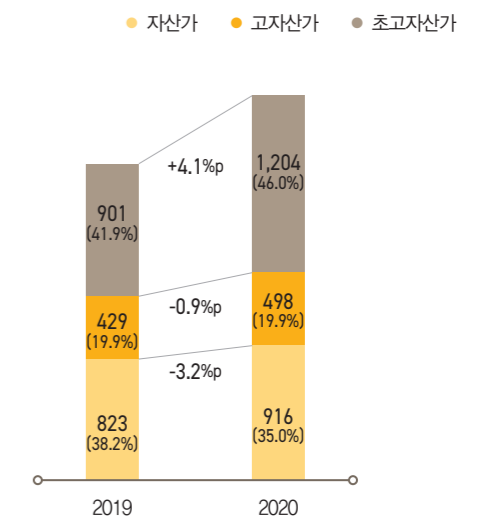
전체 인구의 0.015%를 차지하는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보유한 초고자산가는 전체 가계 금융자산의 28%인 1,204조원, 1인당 평균 1,550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03 자산규모별 부자 구분 (단위: 천명)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그림 04 부자 구분별 금융자산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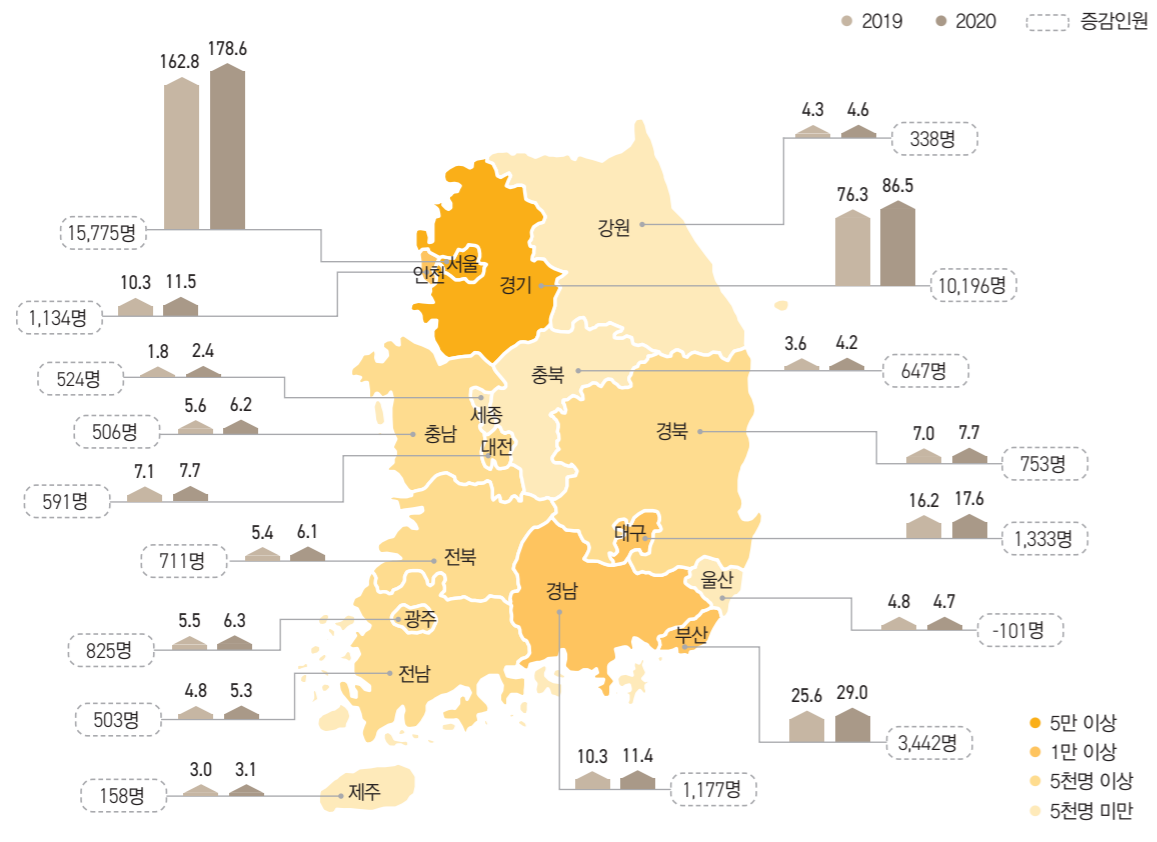
주)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개인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개인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 이상 개인

”
한국 부자는 서울과 수도권에 70.4%가 집중되어 있고,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2만 7천 명이 늘었다

한국 부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에 45.5%인 17만 9천 명(2019년 16만 3천 명)이 살고 있으며, 경기 8만 6천 명(2019년 7만 6천 명), 부산 2만 9천 명(2019년 2만 6천 명), 대구 1만 8천 명, 인천 1만 1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한국 부자의 70.4%(전년과 동일)가 집중되어 있으며,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에 16.6%(전년 대비 0.1%p 감소), 경기를 제외한 기타지방에 13.0%(0.1%p 증가)의 부자가 거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2만 7천 명, 전국에서 3만 9천 명의 부자가 늘었다.

서울 내에서는 서초, 강남, 송파 등 강남 3구에 부자의 45.7%(전년 대비 1.0%p 감소)가 집중되어 있다. 그 외 강북 지역에 33.5%(0.8%p 증가), 강남 3구를 제외한 강남지역에 20.9%(0.2%p 증가)가 살고 있다. 지난 1년간 강남 3구에서 5천 5백 명의 부자가 늘었다.

그림 05 지역별 부자수 현황 및 증감 (단위: 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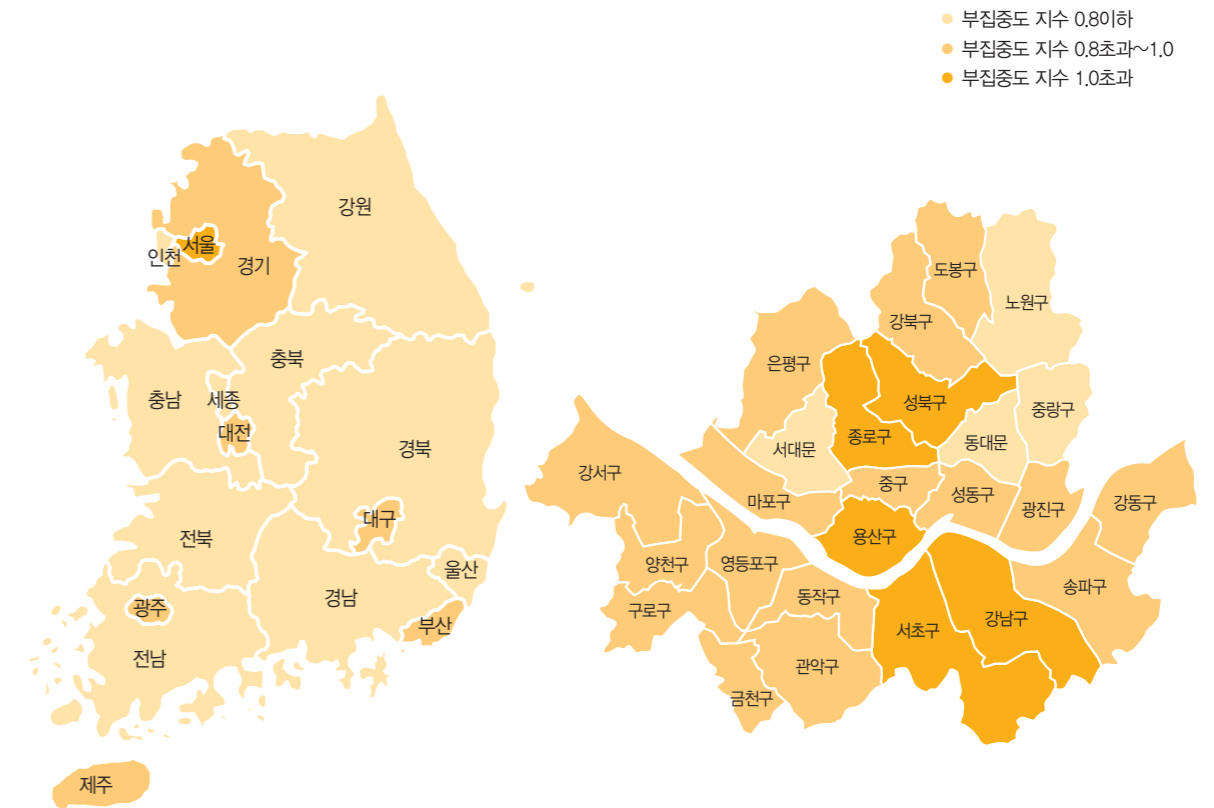


”
전국의 부집중도 지수는 서울이 가장 높고
이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제주, 경기, 인천 순이었다

부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자산가 분포를 살펴보기 위해 ‘부집중도 지수’를 분석해보았다. ‘부집중도 지수’는 광역시도/자치구별 부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총액 비중을 부자 수 비중으로 나눈 수치로,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해당 지역은 부의 집중도가 높고 고자산가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 부의 집중도는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고 이어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제주, 경기, 인천 순으로 부의 집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 서초, 종로, 성북, 용산 5개 자치구의 부의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06 전국 광역시도별, 서울시 부집중도 지수



주1) 부집중도 지수 = 광역시도 부자들의 금융자산 비중 / 광역시도 부자수 비중, 부집중도 지수가 1 이상이면 부자수 대비 금융자산이 많아 부가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고 고자산가 비중이 더 높은 것을 의미

02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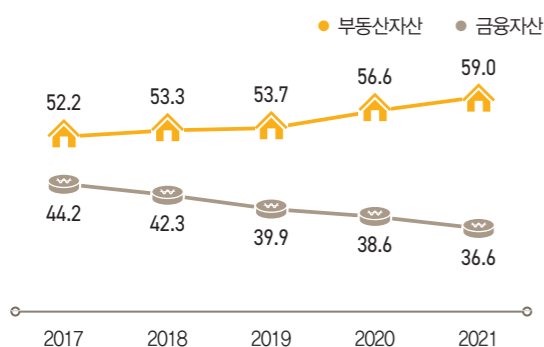
부자의 총자산은 59.0%의 부동산자산과 36.6%의 금융자산으로 구성, 부동산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21년 한국 부자의 총자산은 부동산자산 59.0%와 금융자산 36.6%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회원권과 예술품 등 기타자산이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고가 아파트를 위시한 부동산 가치 상승의 영향으로 최근 2년 크게 늘었다. 일반 가구의 총자산이 부동산자산 78.2%와 금융자산 17.1%로 구성²된 것과 비교하면, 부자의 금융자산 비중은 일반 가구의 두 배 이상으로 높다. 이는 일반 가구의 자산이 대부분 시가 수억원 내외의 주택 한 채와 금융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부자에 비해 높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부자의 금융자산규모별 자산구성비를 살펴본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작은 30억원미만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64.9%로, 30억원이상 부자(51.3%) 보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다.

1 제1부 제1장 이하의 한국 부자의 라이프스타일과 금융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자산 10억원이상 전국 부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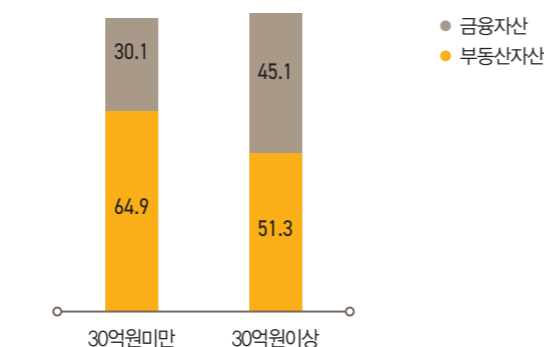
2 통계청(2021), 2020 가계금융복지조사 데이터 재분석(전월세보증금 6.4%를 부동산자산에 포함하여 분석)

그림 07 부자의 자산구성비 추이 (단위: %)



주) 기타 포함 100%. 기타는 그래프에서 제외

그림 08 금융자산구분별 자산구성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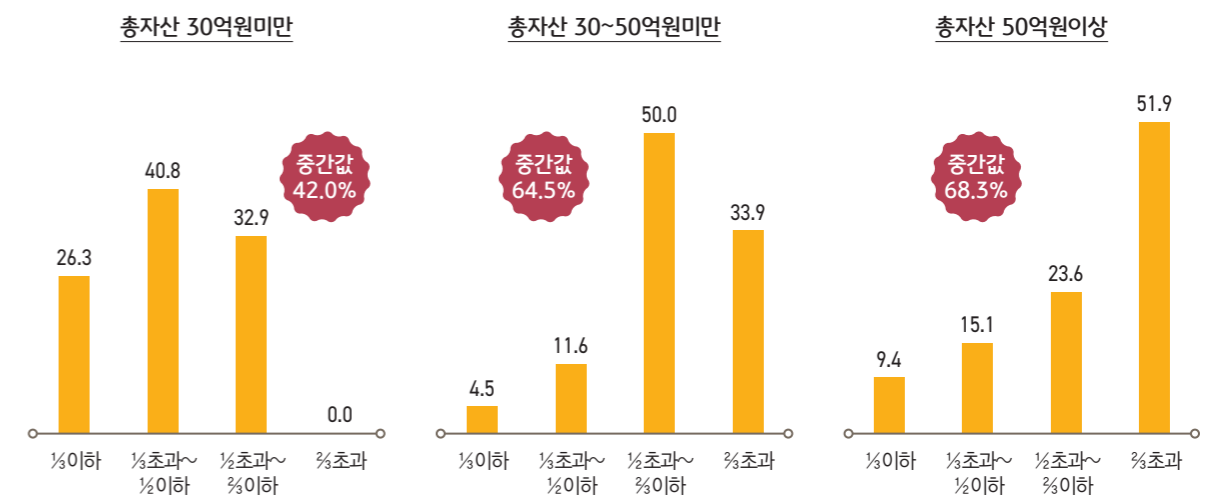
주)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부자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은 총자산이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인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은 총자산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총자산이 많을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았다. 이를 확인하고자 총자산규모별 부동산자산 비중을 조사한 결과, 부동산자산 비중이 1/2을 초과하는 부자는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 32.9%,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 83.9%, 50억원이상 부자 75.5%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비중이 1/3을 초과하는 부자로 한정하면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 33.9%, 50억원이상 부자 51.9%를 기록했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부동산자산 비중은 2020년 39.3% 대비 10%p 이상 급증했는데, 이는 자가 및 투자를 위해 보유한 주택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파악된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평균 부동산자산 비중은 68.3%로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 64.5%에 비해 높았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 중에서 부동산자산 비중이 총자산의 1/2 이하인 경우는 24.5%로 금융상품에 절반 이상의 자산을 투자하는 경우가 총자산 30억원~50억원미만 부자보다 많았다. 총자산이 많을수록 주택, 상가 등 부동산 외에 다양한 금융상품 위주로 투자하는 경우도 일정 비율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09 총자산별 부동산자산 비중 분포 (단위: %)



주1) 부동산 비중 = 부동산자산 / (부동산자산 + 금융자산) 중간값 (42.0%, 64.5%, 6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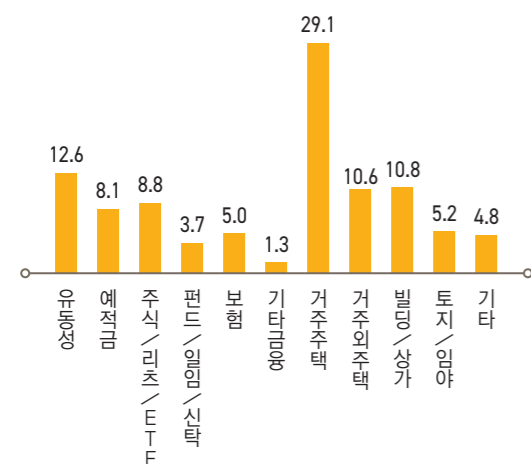
주2)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자산 비중이 1/3을 넘을 수 없음

”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9.1%로 가장 비중이 크고, 빌딩/상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중이 크게 줄었다

한국 부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29.1%로 가장 비중이 크다.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거주주택 비중은 2019년 19.7%, 2020년 26.1%, 2021년 29.1%로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유동성금융자산(12.6%), 빌딩/상가(10.8%), 거주외주택(10.6%), 주식/리츠/ETF(8.8%), 예적금(8.1%) 순이었다. 전년 대비 거주주택(3.0%p 증가)과 주식(3.0%p 증가)은 비중이 늘었고, 유동성금융자산(4.0%p 감소)과 빌딩/상가(1.2%p 감소), 예적금(1.2%p 감소)은 비중이 줄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올 상반기까지 주식시장에 가계 자금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그 영향으로 부자들도 주식 비중이 예적금 비중을 넘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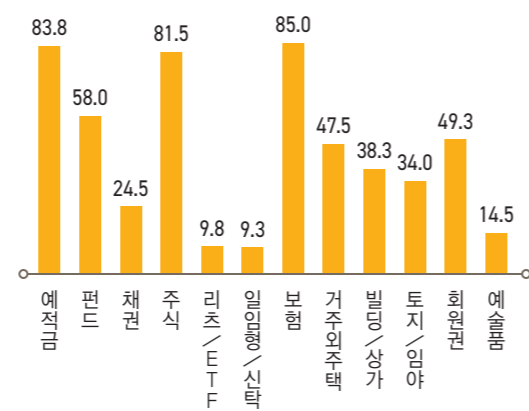
자산별 보유율은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이 각각 83.8%, 85.0%로 나타나 부자 5명 중 4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었다. 주식은 2020년 67.5%에서 2021년 81.5%로 보유율이 급증했는데,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보인다. 펀드(58.0%), 회원권(49.3%), 거주외주택(47.5%)은 50% 내외 보유율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펀드의 경우 보유율이 2020년 10%p 이상 하락했다가 2021년 3.0%p 상승했는데 역시 주식시장 활황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어 빌딩/상가, 토지/임야, 채권이 25~40% 수준의 보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0 부자의 자산 세부구성비 추이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

그림 11 자산별 보유율 (단위: %)



주) 보유율100%인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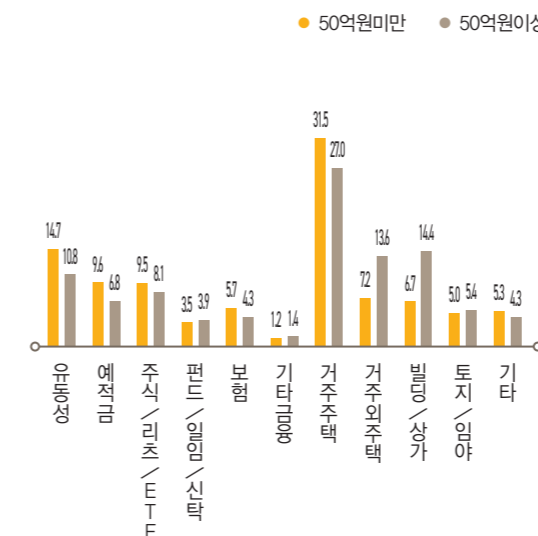
”
부자들은 보유한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토지/임야, 회원권, 채권, 예술품 등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확대한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에서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거주주택 비중은 2020년 19.9%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30.8%에 비해 10%p 이상 적었으나 2021년에는 이 차이가 5%p 이내로 좁혀졌다. 다만 여전히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거주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 높은 자산의 다양성을 보인다.

거주주택 비중이 적은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빌딩/상가 비중이 14.4%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25.0%인 데 비해 50억원이상 부자는 50.0%를 기록해 격차가 2배에 달한다. 이는 총자산이 많을 수록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빌딩/상가 투자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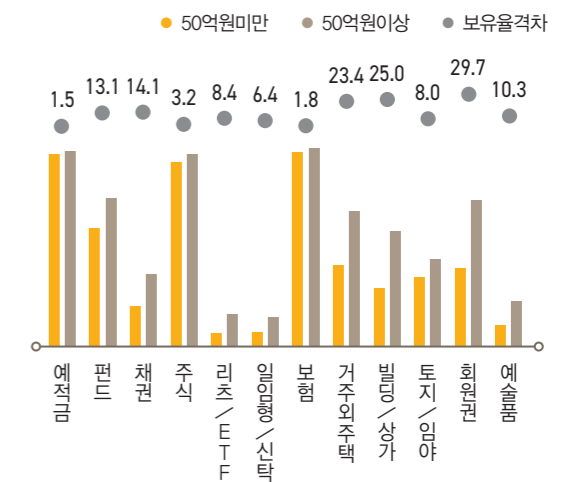
한편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거주외주택 비중은 13.6%로 전년에 비해 1.7% 상승한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7.2%로 올해 2.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거주외주택, 토지/임야, 회원권, 예술품, 채권 등에서 총자산규모별 보유율이 10%p 이상의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다양한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총자산규모별 자산 비중 차이 (단위: %)



주1) 유동성금융자산= 현금+수시입출금+MMF/MMT
주2) 개인 구성비의 평균 수치

그림 13 자산규모별 자산 보유율 차이 (단위: %, %p)



주) 보유율100%인현금, 요구불/수시입출식예금, 거주주택 제외

부자의 투자 행태

01 | 부자의 투자 성향

02 | 부자의 투자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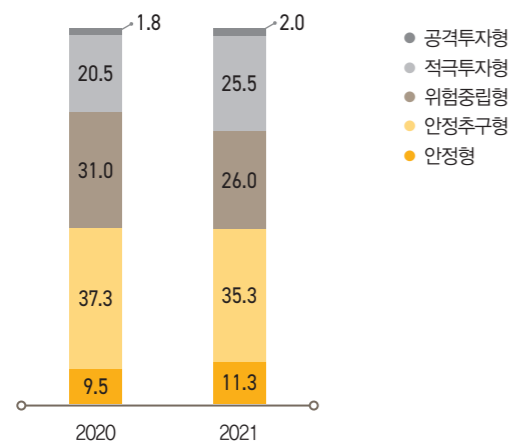
01 부자의 투자 성향

“**‘한국 부자’는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졌고,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을 보인다**”

한국 부자가 보이는 투자 행동의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투자 성향이다.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행동을 결정하는 데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투자 성향에는 공격투자형, 적극투자형, 위험중립형, 안정추구형, 안정형이 있다.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모았는지 궁금할 때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투자 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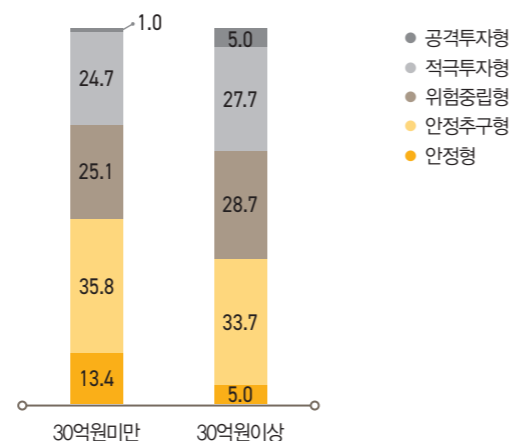
한국 부자는 2020년에 비해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수익률만큼 큰 손실률을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 비중의 합은 2020년 22.3%에서 2021년 27.5%로 5.2%p 증가했다. 금융자산규모별 ‘적극투자형’과 ‘공격투자형’ 비중의 합은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 25.7%, 30억원이상 부자 32.7%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부를 증식하려는 성향이 강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4 부자의 투자 성향 추이 (단위: %)



주) 2020년 전체 n=400, 2021년 전체 n=400

그림 15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성향 (단위: %)



주)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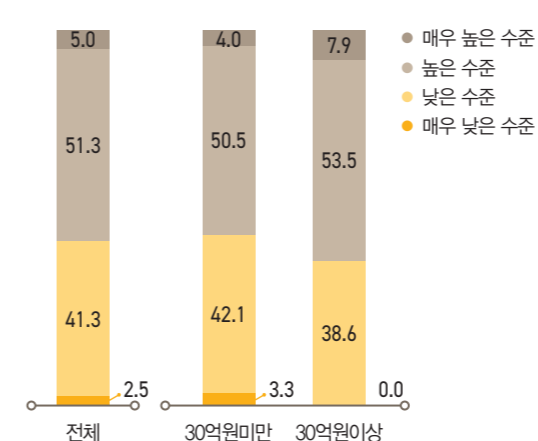
”

부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며, 투자 성향이 공격적일수록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을 높게 평가한다

한국 부자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금융상품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부자의 56.3%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했다.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강했다.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61.4%)가 30억원미만 부자(54.5%)보다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6.9%p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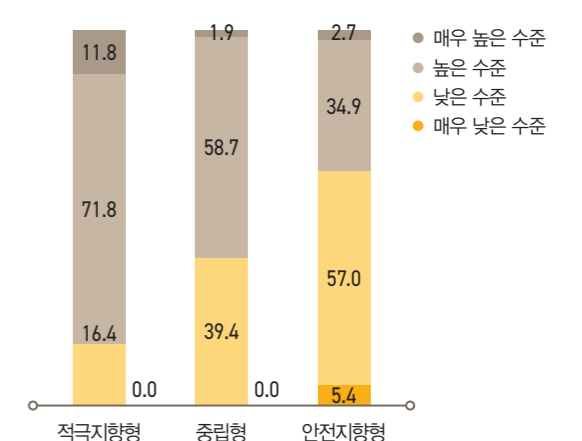
투자 성향에 따라서도 투자 지식수준에 대한 자신감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원금 손실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적극 지향형 부자는 83.6%가 자신이 높은 투자 지식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반면 ‘원금 손실 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 수익’을 추구하는 안전 지향형 부자는 37.6%만이 자신의 투자 지식이 높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투자 지식을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 대상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정도로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부자는 적극 지향형(11.8%)이 안전 지향형(2.7%)보다 9.1%p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적극 지향형 부자는 높은 수익 실현을 위해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적으로 투자 지식을 쌓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16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지식 수준 비교 (단위: %)



주)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그림 17 투자성향별 투자 지식 수준 비교 (단위: %)



주) 적극지향형 n=110, 중립형 n=104, 안전지향형 n=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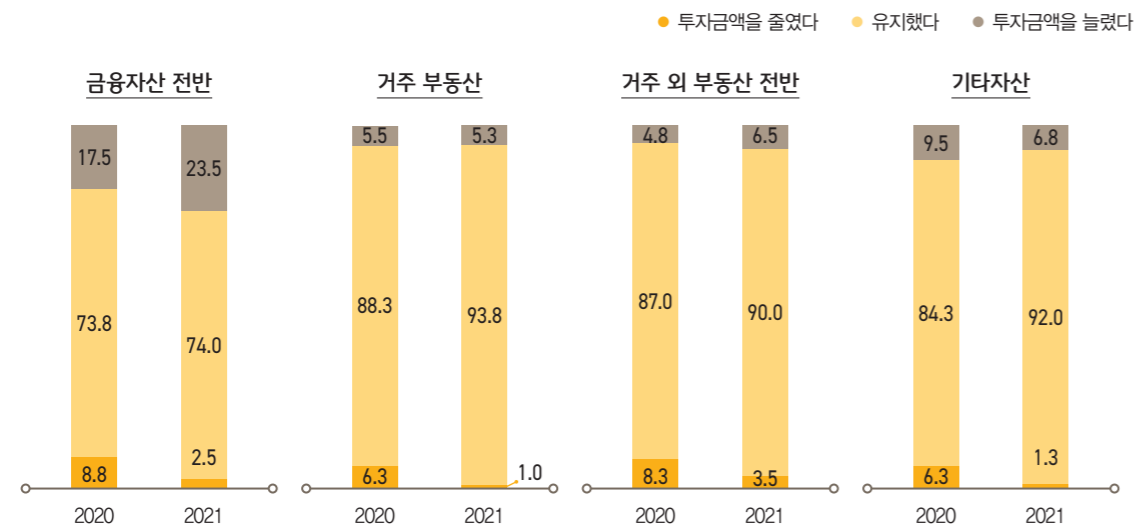
02 부자의 투자 행동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금융자산 투자금액을 늘렸다

한국 부자의 투자 행태와 향후 투자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올해 자산을 어떻게 운용했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 올해 한국 부자는 전년 대비 금융자산 투자금액은 늘리고, 거주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자산과 기타자산 투자금액은 유지하는 전략을 채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전반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전년(17.5%) 대비 6.0%p 증가했고, 투자금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전년(8.8%) 대비 6.3%p 감소한 2.5%로 나타났다. 거주부동산(93.8%)과 거주외부동산(90.0%)에 대해서는 부자 대부분이 투자금액을 유지했다. 기타자산 역시 92.0%의 부자가 투자금액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8 부자의 자산 운용 행태 추이 (단위: %)



주) 2020년 n= 400, 2021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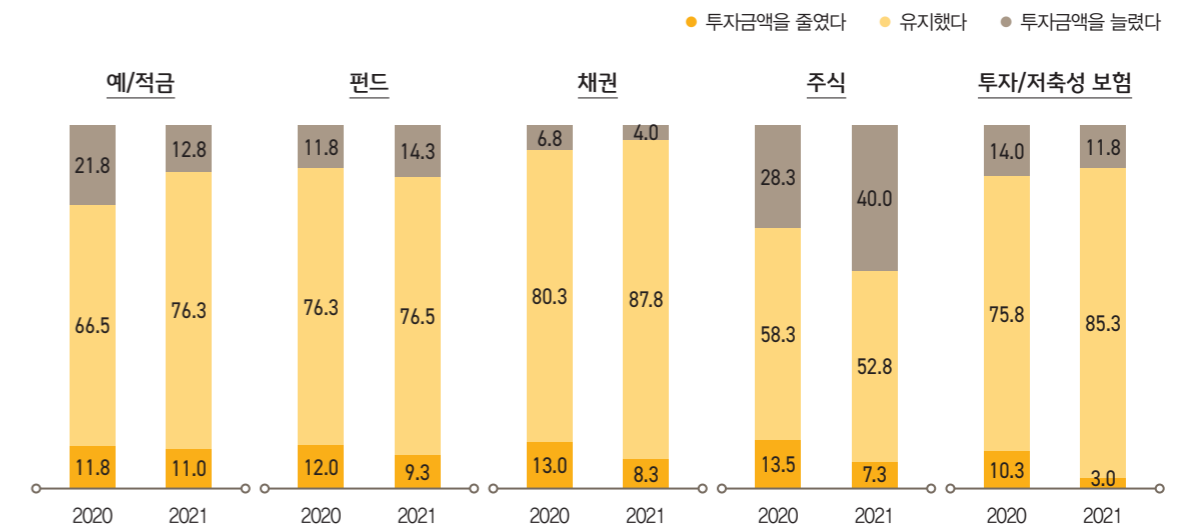
부자들은 주식과 펀드 투자금액을 늘렸고,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 투자금액은 유지했다

부자들의 올해 금융자산 운용 행태를 금융상품별로 살펴보면, ‘펀드’와 ‘주식’은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적금’, ‘채권’, ‘투자/저축성 보험’은 투자금액을 유지했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주식의 경우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2020년 28.3%에서 2021년 40.0%로 11.7%p 증가했다. 반면 투자금액을 줄였다는 응답은 2020년 13.5%에서 2021년 7.3%로 6.2%p 감소했다. 펀드 역시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이 2020년 11.8%에서 2021년 14.3%로 소폭 증가했다. 이는 부자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적금과 투자/저축성 보험의 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둘 다 전년 대비 10%p가량 증가했다. 이는 자산을 거치하기보다는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등 적극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부자들의 투자 행태가 반영된 결과다.

그림 19 부자의 금융자산 운용 행태 추이 (단위: %)



주) 2020년 n= 400, 2021년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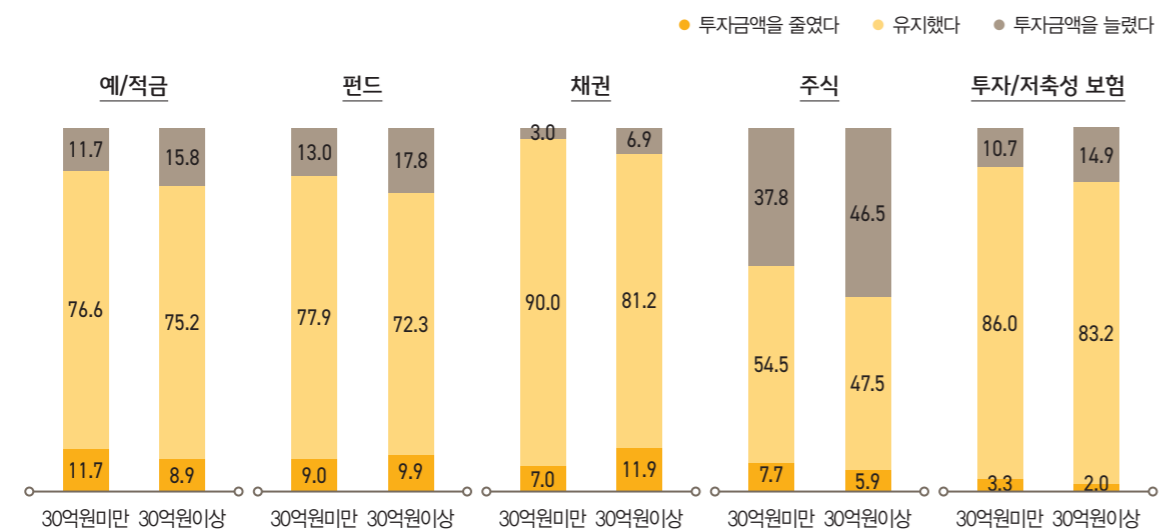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 30억이상 부자가 '주식'과 '펀드' 투자금액을 더 많이 늘렸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식과 펀드 투자금액을 더 많이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주식을 금융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30억미만 부자의 37.8%, 30억원이상 부자의 46.5%가 전년 대비 투자금액을 늘렸다고 응답했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식투자를 더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펀드 역시 30억원이상 부자(17.8%)가 30억미만 부자(13.0%)보다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런 추세는 예적금, 투자/저축성 보험에도 반영되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자금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 예적금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은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15.8%)가 30억미만 부자(11.7%)보다 많았고, 투자/저축성 보험 또한 30억원이상 부자(14.9%)가 30억미만 부자(10.7%)보다 투자금액을 늘린 경우가 더 많았다.

부자들은 기타자산 투자처로 '금/보석'과 '회원권'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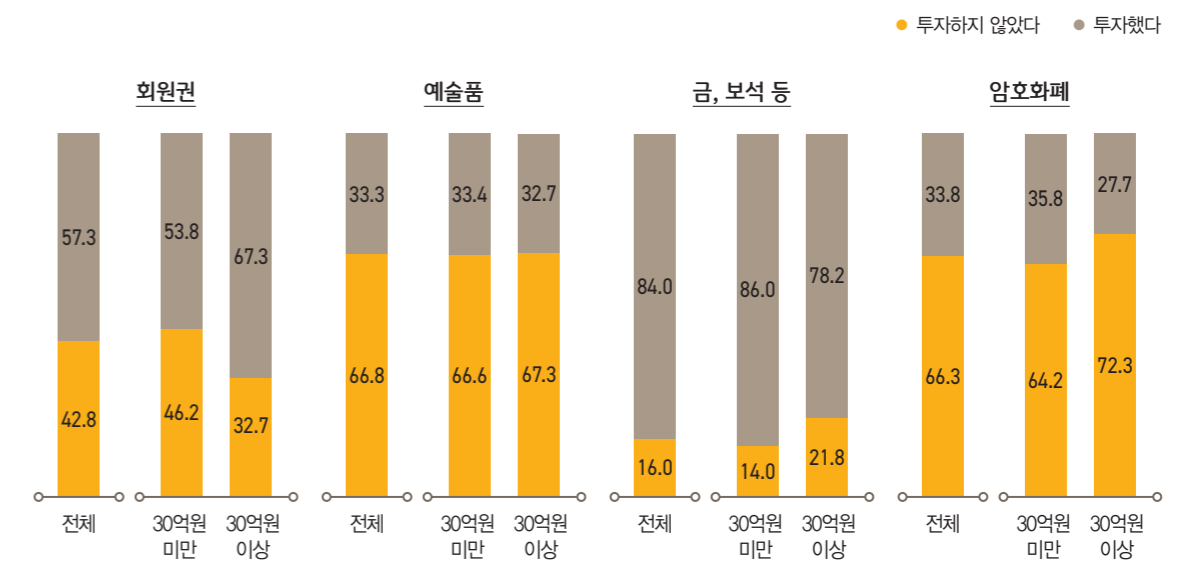
부자들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이외에 가장 선호하는 기타자산은 '금/보석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의 84.0%가 2021년 금/보석 등에 투자했다고 응답했으며, 이 수치는 금융자산 30억미만 부자(86.0%)가 30억원 이상 부자(78.2%)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선호하는 기타자산은 '회원권'으로, 전체 부자의 57.3%가 회원권에 투자했다고 응답했다.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67.3%)가 30억미만 부자(53.8%)보다 응답률이 높아,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회원권 투자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도자기 등 '예술품'의 경우 전체 부자의 33.3%가 투자했다고 응답했으며, 금융자산규모별 투자 응답률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 외 '암호화폐'에 투자한 부자는 전체 부자의 33.8%를 차지했다. 금융자산 30억미만 부자 35.8%, 30억원이상 부자 27.7%를 기록해 금융자산이 적을수록 암호화폐 투자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0 금융자산규모별 금융자산 운용 행태 (단위: %)



주) 30억미만 n=299, 30억이상 n=101

그림 21 금융자산규모별 기타자산 투자 현황 (단위: %)



주) 30억미만 n=299, 30억이상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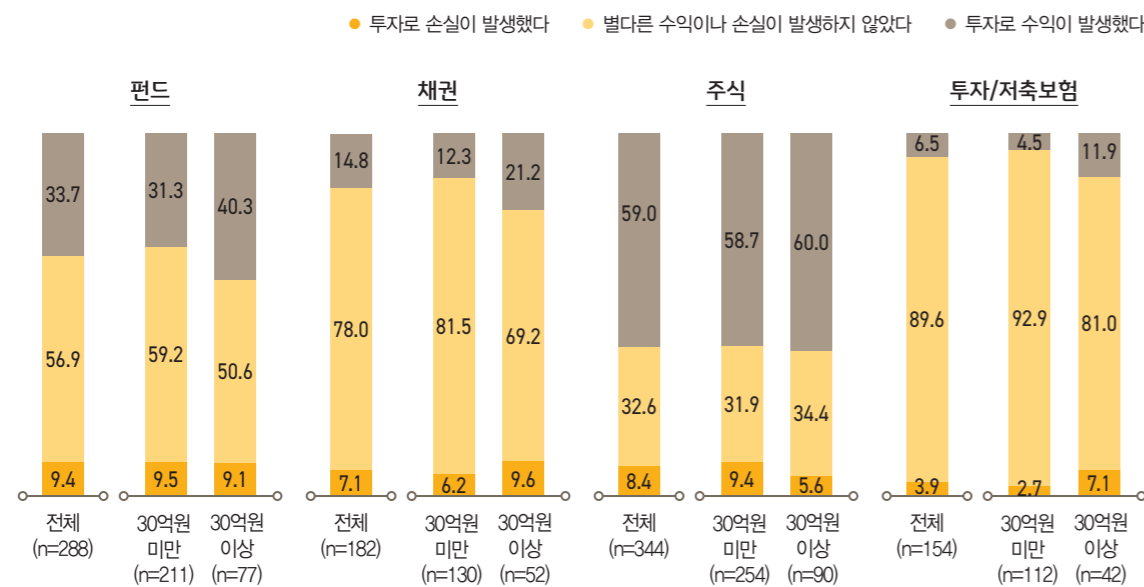
부자 10명 중 6명은 주식투자로,
10명 중 3명은 펀드투자로 수익을 경험했다

앞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투자를 확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자산 운용 결과를 분석해보면, 금융자산이 많은 부자일수록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부자들이 금융자산을 운용하면서 가장 많이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주식'(59.0%)이었다. 금융자산규모별로는 30억원이상 부자(60.0%)가 30억원미만 부자(58.7%)보다 수익을 경험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주식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경우는 전체 부자의 8.4%,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 9.4%, 30억원이상 부자 5.6%를 기록해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주식투자에서 손실 경험이 적었다.

부자들이 두 번째로 많이 수익을 경험한 자산은 '펀드'였다. 펀드투자로 손실을 경험한 경우는 9.4%에 불과한 반면 수익을 경험한 경우는 33.7%로 나타났다. 펀드 역시 수익을 경험한 비율은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40.3%)가 30억원미만 부자(31.3%)보다 높았다. '채권'의 경우 전체 부자의 14.8%가 투자 수익을 경험했고,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21.2%)가 30억원미만 부자(12.3%)보다 수익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그림 22 금융자산규모별 금융자산 운용 결과 (단위: %)



주) 해당 금융투자자산 투자자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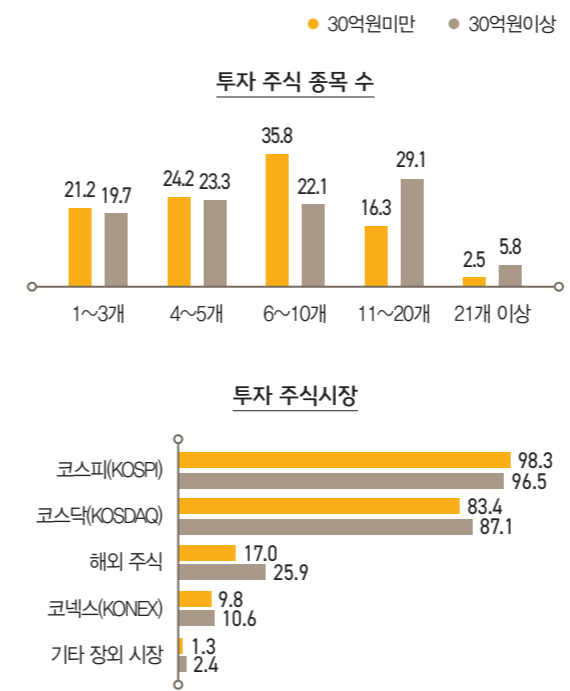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는 주식 종목이 많고,
해외주식투자에 적극적이다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하는 주식 종목이 많고, 해외 주식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종목이 10개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가 18.8%에 그치는 데 비해 30억원이상 부자는 34.9%를 기록했다. 투자 중인 주식시장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을 꼽은 응답자는 금융자산규모별로 유사했지만, 해외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30억원이상 부자(25.9%)가 30억원미만 부자(17.0%)보다 8.9%p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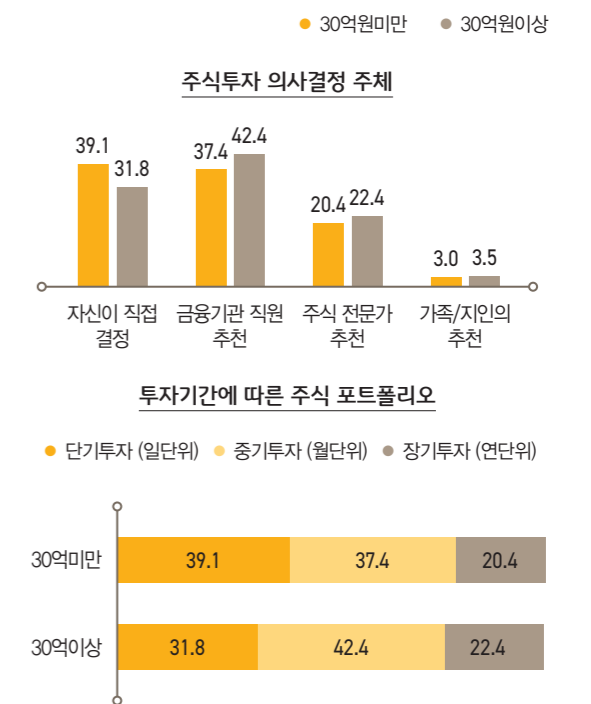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방법에서도 금융자산규모별 차이를 보였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결정'(39.1%)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30억원이상 부자는 '금융기관 직원 추천'(42.4%)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았다. 투자 기간에 따른 주식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규모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단기투자(39.1%), 30억원이상 부자는 중기투자(42.4%)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3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현황 (단위: %)



주1) 30억원미만 n=235, 30억원이상 n=85
주2) 현재 주식에 투자중인 응답자만, 투자 주식시장은 복수응답

그림 24 금융자산규모별 주식투자 성향 (단위: %)



주) 30억원미만 n=235, 30억원이상 n=85

부자의 향후 투자

01 |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02 | 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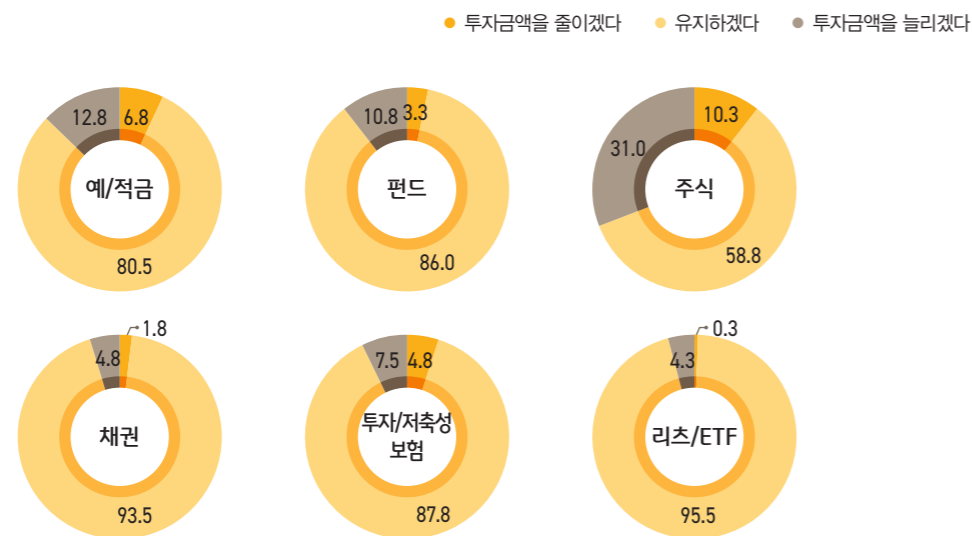
01 부자의 향후 투자 전략

부자들의 향후 금융자산 운용 방향은 전년 대비 투자 유지하되, 주식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부자들은 향후 금융자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투자금액을 유지하는 방향을 선택했다.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자산에 대해 부자들의 80~90% 정도는 향후 '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하였다. '주식'의 경우 올해 투자금액을 늘렸다는 응답률(40.0%)보다는 낮지만 향후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률이 31.0%를 기록하며, 투자자산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예적금'에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률은 12.8%로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 외 '펀드'(10.8%), '투자/저축성 보험'(7.5%), '채권'(4.8%), '리츠/ETF'(4.3%)에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향은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림 25 향후 금융자산별 운용 방향

(단위: %)



주) 전체 n=400

“ '주식'과 '예적금'투자를 확대하려는 계획은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가 더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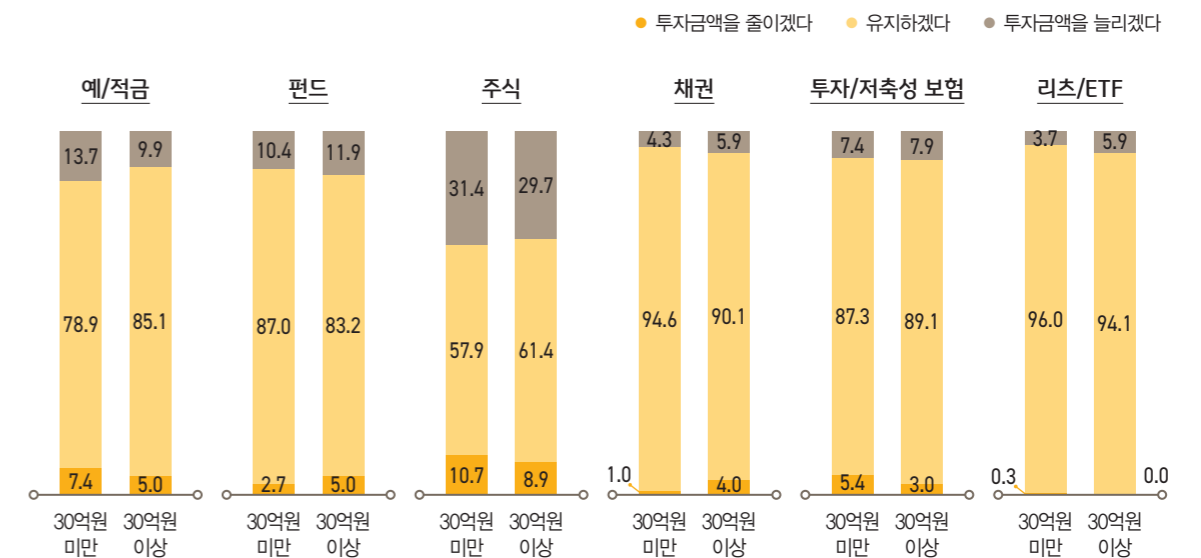
앞서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향후 금융자산투자를 확대하기보다는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규모별로 투자 확대 계획에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보았다.

금융자산 중 투자 확대 계획이 가장 많았던 '주식'의 경우, 30억원미만 부자(31.4%)의 투자 확대 의향이 30억원 이상 부자(29.7%)보다 높게 나타났다. '예적금' 역시 30억원미만 부자가 13.7%로 30억원미만 부자(9.9%)보다 투자 확대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ELS나 DLS가 포함된 '펀드'와 '채권'은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가 30억원미만 부자보다 각각 1.5%p, 1.6%p의 투자 확대 의향이 많았다. 연금, 변액, 변액유니버설 등 '투자/저축성 보험'과 '리츠/ETF' 역시 30억원 이상 부자가 30억원미만 부자보다 각각 0.5%p, 2.2%p 투자 확대 의향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6 금융자산규모별 향후 금융자산 운용 방향

(단위: %)



주) 30억원미만 n= 299, 30억원이상 n=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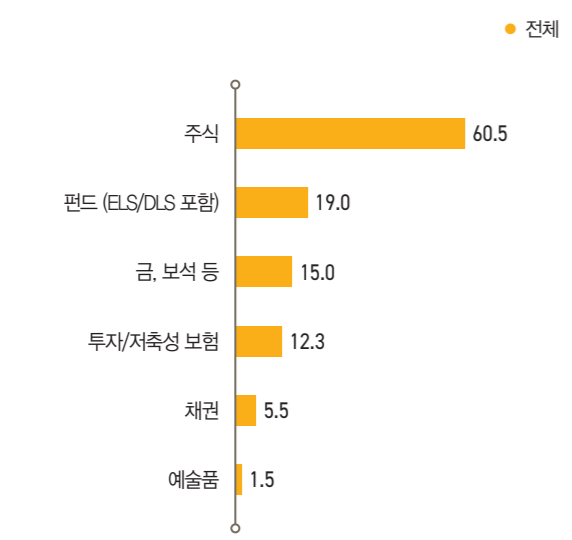
”
한국 부자 10명 중 6명은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유망 투자처로 ‘주식’을 꼽았다

장기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투자처를 묻는 질문에 한국 부자의 60.5%가 ‘주식’을 선택해 다른 자산에 비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였다. 이어 ELS와 DLS를 포함한 ‘펀드’(19.0%), ‘금/보석 등’(19.0%), ‘투자/저축성 보험’(12.3%) 순이었다.

부자 중에서도 금융자산규모에 따라 유망 투자처에 대한 전망은 다소 차이를 보였다. 가장 유망한 자산 1순위, 2순위로 ‘주식’과 ‘펀드’를 선택한 것은 동일하지만 3순위로 30억원미만 부자는 ‘금/보석 등’, 30억원이상 부자는 ‘투자/저축성 보험’을 선택했다. 앞서 2021년 금/보석 등의 투자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도 30억원미만 부자의 응답이 30억원미만 부자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향후 투자 전망에서도 동일한 성향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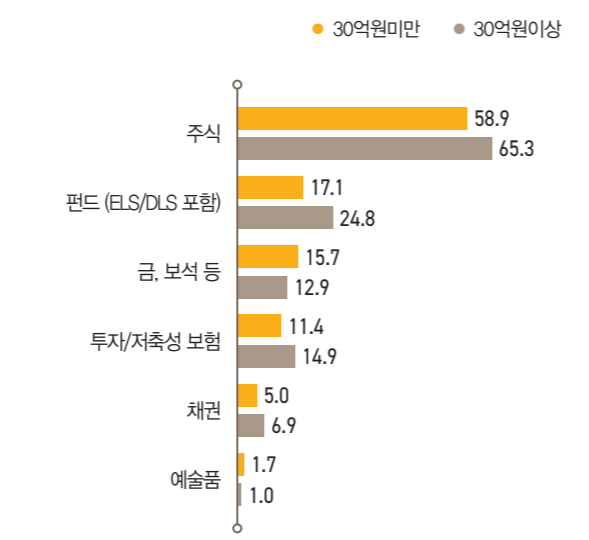
그 외 자산 대부분에 대해서는 30억원이상 부자의 전망이 30억원미만 부자보다 긍정적이었다. ‘주식’을 유망 자산으로 꼽은 응답자는 30억원이상 부자(65.3%)가 30억원미만 부자(58.9%)보다 6.4%p 높게 나타났고, ELS와 DLS를 포함한 ‘펀드’ 역시 30억원이상 부자(24.8%)가 30억원미만 부자(17.1%)보다 유망 자산으로 꼽는 경우가 많았다.

그림 27 향후 고수익 예상 투자처 (단위: %)



주1) 전체 n=400
주2)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복수선택

그림 28 금융자산규모별 향후 고수익 예상 투자처 (단위: %)



주1)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주2)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복수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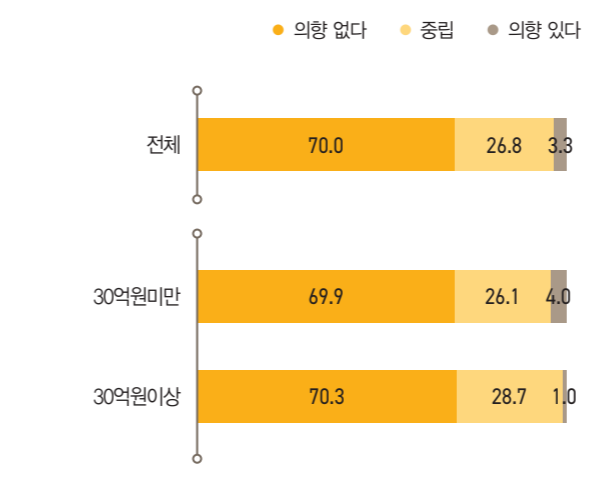
”
부자들은 대부분 ‘암호화폐’ 투자에 부정적이며,
주된 이유는 ‘투자 손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부자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자 중 ‘향후 암호화폐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고, ‘상황에 따라 투자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26.8%, ‘투자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70.0%를 기록했다. 금융자산규모별 암호화폐 투자 의향은 30억원미만 부자가 4.0%, 30억원이상 부자가 1.0%를 기록해 전반적으로 매우 낮았다.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금융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투자 손실 위험이 커서’를 1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뢰할 수 없어서’(42.3%)를 꼽았고,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암호화폐에 대해 잘 몰라서’(33.5%)를 꼽았다. 그 외 ‘암호화폐의 가치 변동률이 너무 높아서’, ‘기존 투자로 충분해서’를 암호화폐 투자를 꺼리는 이유로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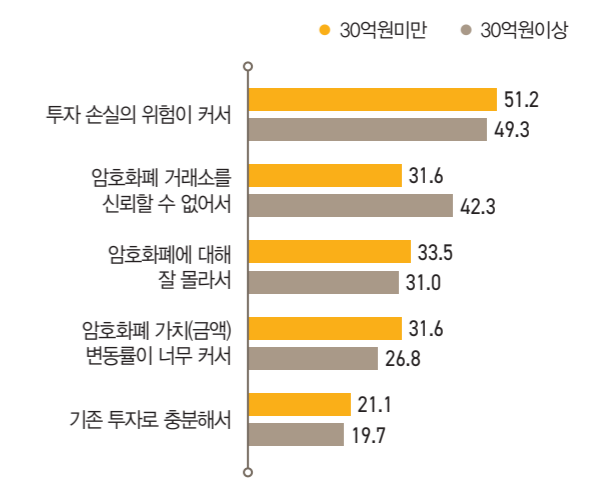
부자들은 대체로 보유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암호화폐는 위험률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고, 거래 자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에 투자처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29 금융자산규모별 향후 암호화폐 투자 의향 (단위: %)



주) 전체 n=400,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그림 30 금융자산규모별 암호화폐 기피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1) 전체 n=280, 30억원미만 n=209, 30억원이상 n=71
주2) 암호화폐 투자 의향 없는 경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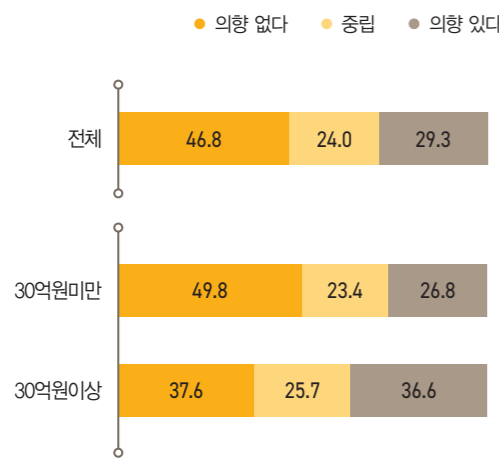
02 부자의 떠오르는 투자처

한국 부자의 29.3%가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이 있으며,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이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를 의미하는 '서학개미' 열풍 등 최근 국내에서도 해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 부자의 29.3%가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자산규모별 해외 자산 투자 의향은 30억원미만 부자가 26.8%, 30억원이상 부자가 36.6%로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해외 자산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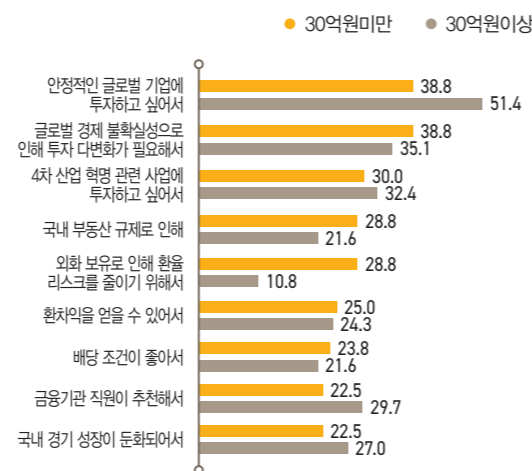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이유는 30억원미만 부자(38.8%)와 30억원이상 부자(51.4%) 모두 '안정적인 글로벌기업에 투자하고 싶어서'를 1순위로 선택했다. 이어 '경제 불확실성으로 투자 다변화가 필요해서'를 금융자산규모와 상관없이 2순위로 꼽았다.

그림 31 부자의 해외 자산 투자 의향 (단위: %)



주) 30억원미만 n=299, 30억원이상 n=101

그림 32 해외 자산 투자 이유 (복수응답, 단위: %)



주1) 30억원미만 n=80, 30억원이상 n=37
주2) 해외 자산 투자 긍정 응답자,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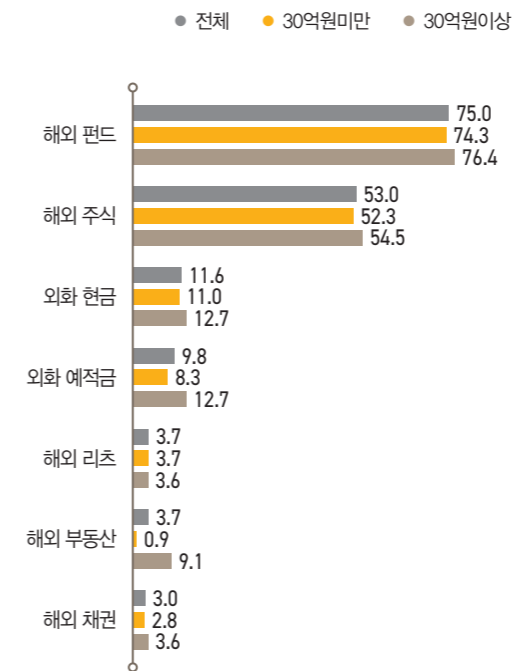
부자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자산은 '해외 펀드', 가장 인기 있는 해외 펀드 투자 지역은 '중국'이다

앞서 부자들의 해외 자산 투자 목적은 단순히 고수익 추구가 아닌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 또는 '투자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해외 자산 투자에 관한 부자의 관심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부자들은 '해외 펀드'(75.0%)와 '해외 주식'(53.0%)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고 있었다. 금융자산 30억원이상 부자는 30억원미만 부자보다 '외화 예적금'(12.7%)과 '해외 부동산'(9.1%)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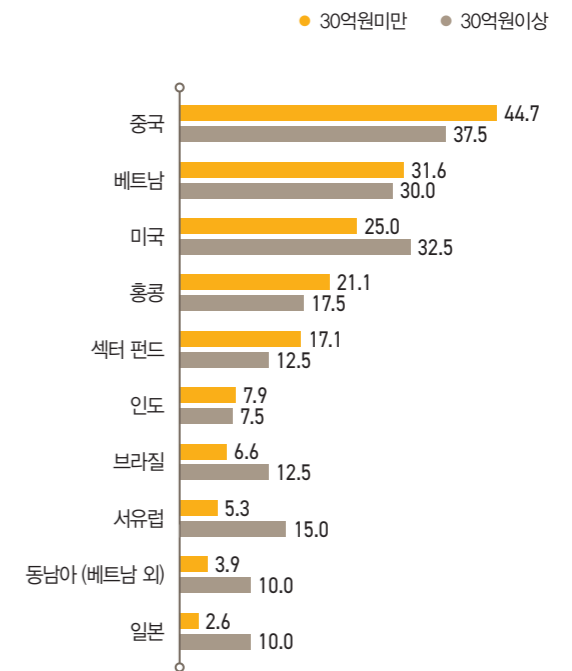
부자들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펀드'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투자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중국'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베트남'(31.6%), 30억원이상 부자는 '미국'(32.5%)을 꼽았다.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브라질', '서유럽', '베트남 외 동남아',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3 부자의 해외 자산 보유 현황 (복수응답, 단위: %)



주1) 전체 n=164, 30억원미만 n=109, 30억원이상 n=55
주2)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만

그림 34 해외 펀드 투자지역 현황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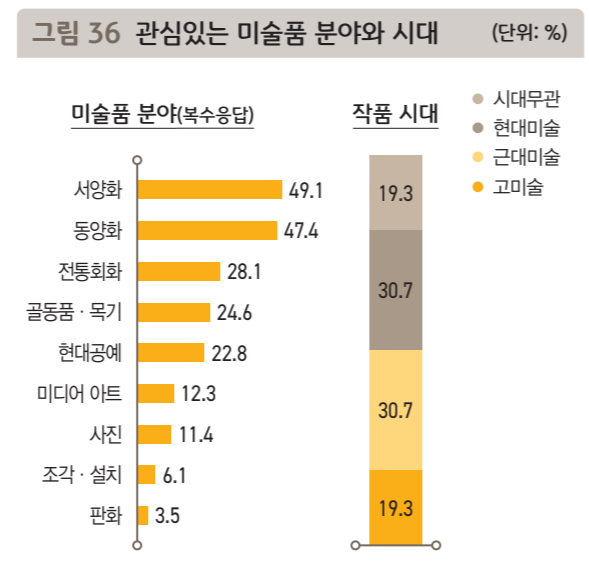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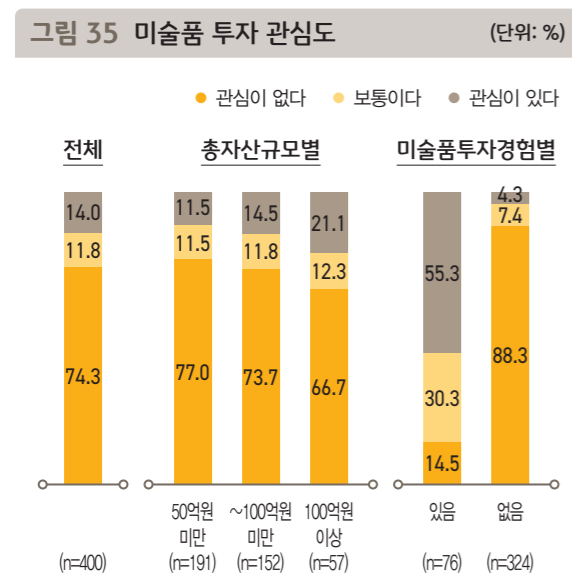
주1) 30억원미만 n=81, 30억원이상 n=42
주2)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경우만

최근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시장 중 하나는 ‘미술품 시장’, 한국 부자는 미술품 중 ‘서양화’와 ‘동양화’에 관심이 많다

최근 한국에서 자산 투자처로 관심이 높은 시장 중 하나가 ‘미술품 시장’이다. 금과 함께 미술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혀 왔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0 미술시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미술시장규모는 2013년 3,249억원에서 2019년 4,147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17년 4,942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8년 4,482억원, 2019년 4,147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경매시장이 크게 성장하면서 2021년 미술품 시장이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술품에 투자하고 있는 부자의 비율은 4.8%로 아직 다른 투자자산에 비해 낮았다. 하지만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0%로 현재 투자하는 비율 대비 관심도가 높게 나타나 향후 투자처로서 잠재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술품 투자에 관한 관심은 총자산규모가 크고, 미술품 투자 경험이 있는 부자를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부자가 관심 있는 미술품 분야는 ‘서양화’, ‘동양화’가 각각 49.1%, 47.4%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통회화’(28.1%), ‘골동품·목기’(24.6%), ‘현대공예’(22.8%)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작품 시대별로는 ‘현대미술’과 ‘근대미술’이 각각 30.7%로 ‘고미술’(19.3%)에 비해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대에 무관하다’는 응답도 19.3%를 기록했다.



주)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만 n=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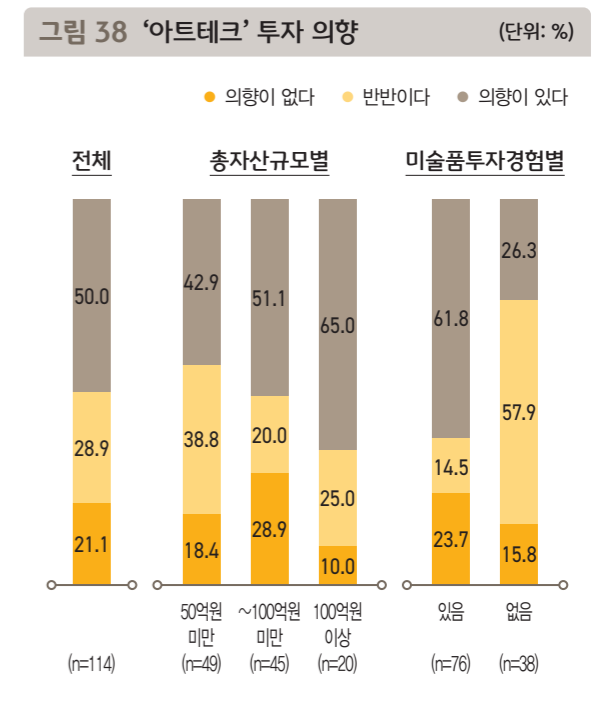
부자들이 미술품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자금 부족보다 미술품 가치 판단, 구매 후 관리/보관, 재판매 등의 어려움이 크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경매시장은 주춤한 데 비해 온라인 경매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 미술품 시장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술품 시장 확대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이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덜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자자금 부족보다는 미술품 가치 판단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부자 중 35.4%는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을 잘 몰라서’라고 응답했고, ‘미술품 구매 후 관리/보관이 어려워’(30.3%),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몰라서’(20.9%), ‘미술품 구매 후 재판매가 어려워’(16.8%) 순으로 꼽았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고 초기 투자자금이 크지 않은 ‘아트테크(Art-tech)’가 최근 미술품 투자처로 주목 받고 있다. 아트테크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말로, 여러 사람이 공동 투자하여 미술품 소유권을 나누는 재테크를 의미한다. 부자들에게 아트테크에 대한 관심도를 묻자, 미술품 투자에 관심 있다는 부자의 50.0%가 투자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총자산이 많고, 미술품 투자 경험이 있는 부자들이 아트테크에 대해 높은 투자 의향을 보였다.



주)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만 n=297



주) 미술품 투자에 관심이 있는 경우만 n=114

부(富)의 성장

01 | 부의 기준

02 | 부의 원천

03 | 부의 성장 동력



01 부의 기준

”
한국 부자들은 총자산이 100억원은 되어야 부자라고 생각한다

부자(富者)의 사전적 정의는 ‘재물이 많아 살림이 넉넉한 사람’을 의미한다. 금융자산을 10억원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는 ‘넉넉한’의 기준을 금융과 부동산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100억원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한국에서 부자라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중간값으로, 응답자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중간값을 사용했다.

한국 부자들이 가장 많이 제시한 부자의 기준 금액은 총자산 100억원(28.5%)이었고, 총자산 50억원(23.3%)이 뒤를 이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100억원미만을 선택한 부자가 48.3%, 100억원이상을 선택한 부자가 51.8%로 과반수 이상의 부자가 100억원이상을 부자 기준으로 생각했다. 300억원이상을 선택한 부자도 11.5%로 전년 대비(6.3%) 5.2%p 증가했다.

그림 39 부자의 기준 금액

(단위: %)



주) n=400

”
부자들은 금융자산 기준 ‘50억원이상’,
총자산 기준 ‘100억원이상’일 때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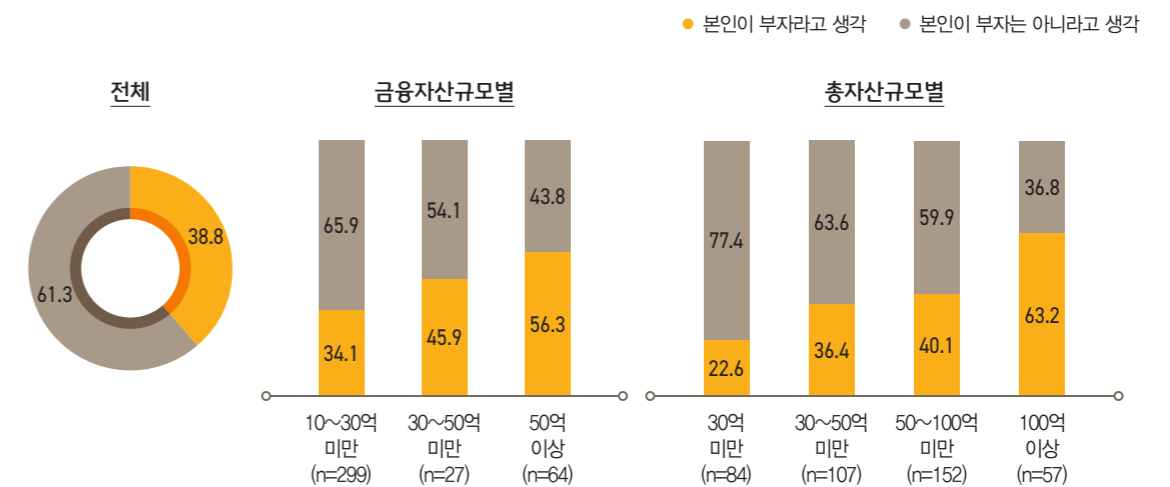
현재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한국 부자는 전체 중 38.8%로 나타났다. 이 비율은 자신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금융자산 10~30억원에서는 34.1%에 불과하지만 30~50억원미만에서는 45.9%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금융자산 50억원이상에서는 과반수(56.3%)가 넘는 부자가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했다.

총자산규모별 부자 자각도 역시 보유 자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총자산 30억원미만에서는 22.6%에 불과하지만 30~50억원미만에서는 36.4%, 50~100억원미만에서는 40.1%로 총자산이 많을수록 높았다. 총자산 100억원이상에서는 과반수(63.2%)가 넘는 부자가 자신을 부자로 인식했다.

부자 자각도뿐만 아니라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 부동산자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기준 그리고 부자라면 갖춰야 할 자산외 기준 역시 총자산규모별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서는 ‘이슈1: 부자의 기준’에서 상세히 다룰 예정이다.

그림 40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

(단위: %)



주) 전체 n=400

02 부의 원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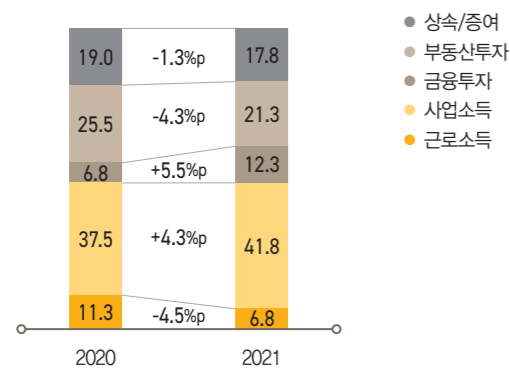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사업소득’이며, 전년 대비 응답률이 증가했다

부자들이 현재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천은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동산투자’(21.3%), ‘상속/증여’(17.8%), ‘금융투자’(12.3%), ‘근로소득’(6.8%) 순이었다.

부자의 41.8%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으로 사업소득을 꼽은 비율은 전년 대비 4.3%p 늘었다. 반면 6.8%가 꼽은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4.5%p 줄어들며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에 의한 소득 기여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의외의 결과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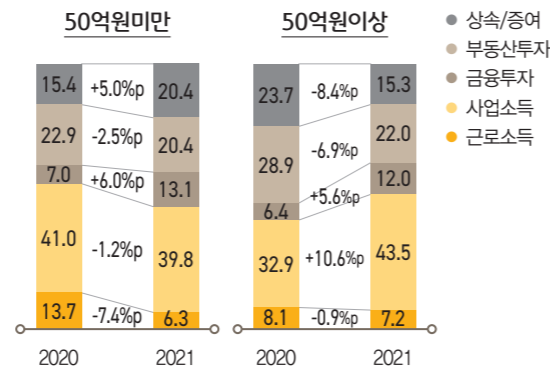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 기여도는 50억원미만 부자나 50억원이상 부자 모두 전년 대비 감소했다. 반면 사업소득 기여도는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1.2%p 감소한 데 비해 50억원이상 부자는 10.6%p 증가해, 자산이 많을수록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고 있었다.

그림 41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단위: %)



주) 2020 n=400, 2021 n=400

그림 42 총자산규모별 부자들이 꼽은 부의 원천 (단위: %)



주) 500만원미만 2020 n=227, 2021 n=191 / 500만원이상 2020 n=173, 2021 n=209

부의 원천이며 성장 기초가 되는 ‘종자산’, 부자들은 최소 5억원으로 본다

부를 축적하기 위해 밑천이 되는 돈이 ‘종자산’이다. 종자산이 마련되어야 투자를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종자산은 평균 8억원이며 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종자산의 최소 규모로 평균 5억 9천만원을 생각했고, 총자산 50~100억원미만 부자는 평균 8억 5천만원,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4억 1천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부자들이 최소 종자돈을 모은 시기는 평균 42세로 나타났고, 종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종자돈을 모은 시기가 빨랐다. 최소 종자돈을 ‘5억원미만’으로 생각한 부자는 39세에 종자돈을 모았고, ‘5~10억원미만’으로 생각한 부자는 42세, ‘10억원이상’으로 생각하는 부자는 44세로 나타났다.

부자들이 종자돈을 마련한 방법은 ‘주식’이 가장 많았고, 이어 ‘거주용 주택’, ‘거주용외 아파트’, ‘거주용외 재건축 아파트’, ‘상가’ 순이었다. 총자산규모에 따라 종자산 마련 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주식보다 거주용 주택을 활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예적금’으로 종자돈을 마련한 경우도 4위를 차지했다. 반면 총자산이 많을수록 종자산 마련 방법의 하나로 상가를 활용했는데, 총자산 50~100억원미만 부자는 상가를 5위, 100억원이상 부자는 4위로 꼽았다.

그림 43 부자의 종자산 규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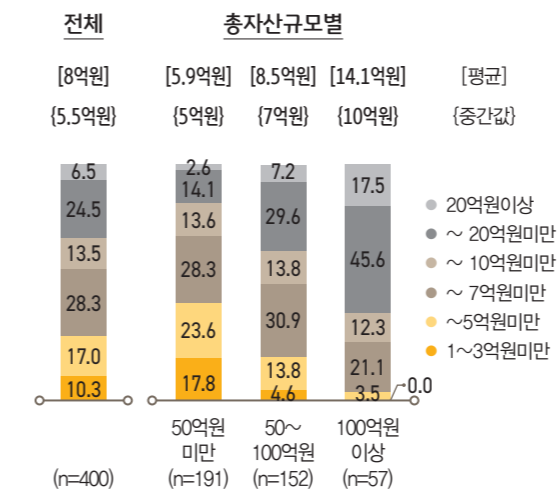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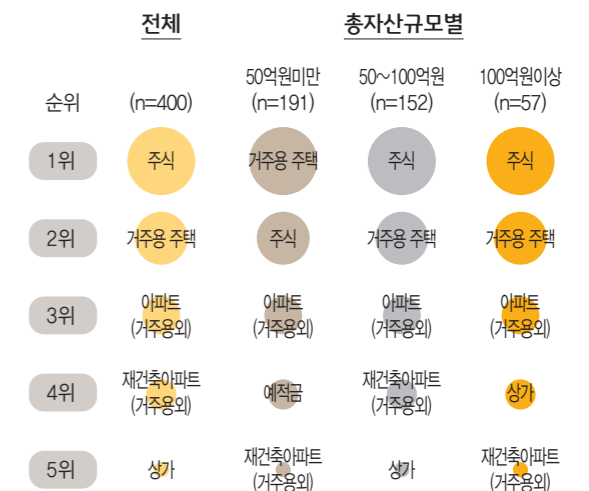


그림 44 총자산규모별 종자산 마련 방법 (상위5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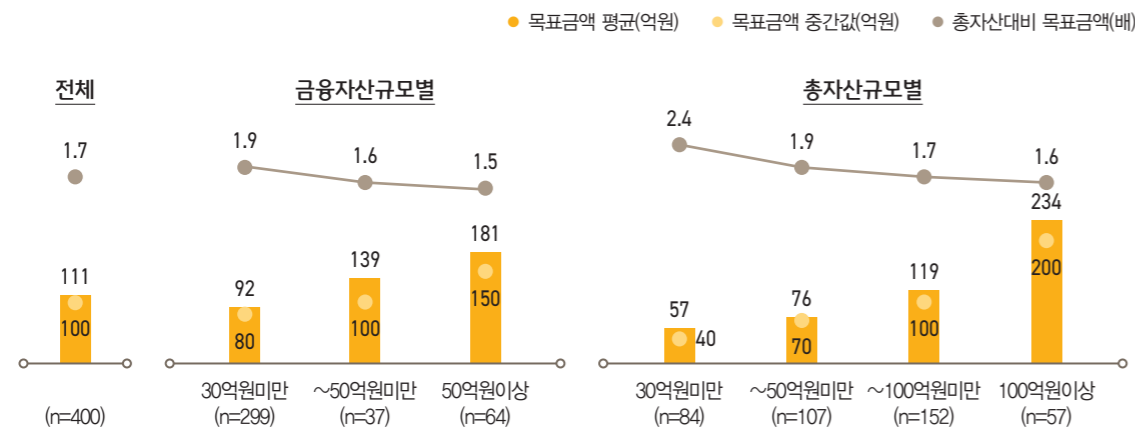
03 부의 성장 동력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첫 번째는 ‘목표금액’, 규모는 평균 111억원이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가장 큰 동력은 ‘목표금액’이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한 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해 더 열심히 자산을 운용하고 투자한다. 부자들이 생각하는 목표금액은 평균 111억원으로 보유 자산의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금융자산규모나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총자산 대비 목표금액 비율은 줄어들었다. 금융자산 30억원미만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금액은 92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9배이고, 금융자산 50억원이상 부자가 생각하는 목표금액은 181억원으로 총자산 대비 1.5배였다. 총자산규모에 따라서도 총자산 대비 목표금액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총자산 대비 목표금액은 2.4배이고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이 비율이 1.6배를 기록해, 총자산이 많을수록 총자산 대비 목표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그림 45 자산 형성 목표금액 규모 (단위: 억원, 억원, 배)



주) 총자산대비 목표금액은 평균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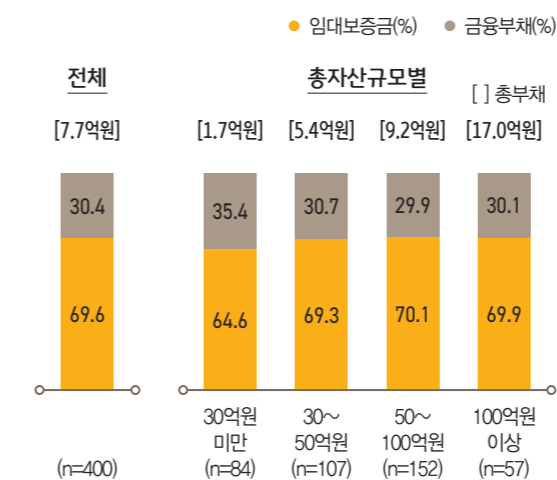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두 번째는 ‘부채 사용’, 자산이 많을수록 사용하는 부채규모도 크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두 번째 동력은 ‘부채 사용’이다. 부자들은 소득을 올리기 위해 부채를 활용하여 투자자산을 마련하거나 사업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규모는 평균 7억 7천만원이며 이중 임대보증금이 69.6%를 차지하고, 금융부채는 30.4%로 부동산으로 형성된 부채가 많았다.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규모는 총자산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평균 1억 7천만원, 30~50억원미만 부자는 평균 5억 4천만원, 50~100억원미만 부자는 평균 9억 2천만원, 100억원이상 부자는 평균 17억원의 부채를 보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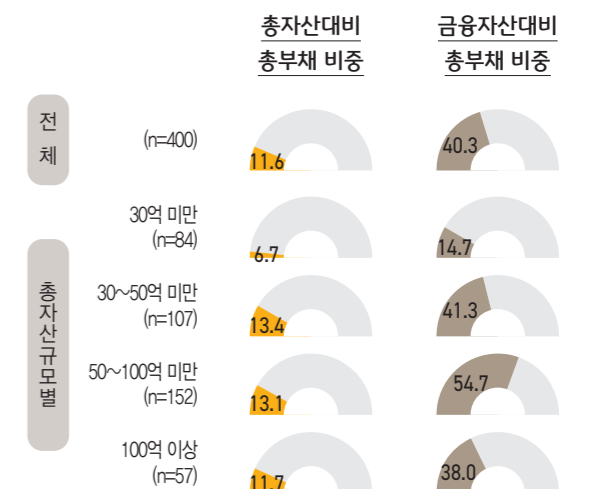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채 비율은 총자산의 11.6%, 금융자산의 40.3%를 차지했다. 총자산 30억원미만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6.7%,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4.7%이고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1.7%,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38.0%를 기록했다. 자산이 많을수록 적극적으로 부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해석되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부자는 총자산 30~50억원미만 부자로 부채 비율이 13.4%를 기록했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가장 큰 부자는 총자산 50~100억원미만 부자로 부채 비율이 54.7%를 나타냈다.

그림 46 부자가구의 부채 현황 (단위: %)



주)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부채규모는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

그림 47 총자산규모별 부채 비중 (단위: %)



주) 총부채 = 금융부채 + 임대보증금 (부채규모는 가구를 기준으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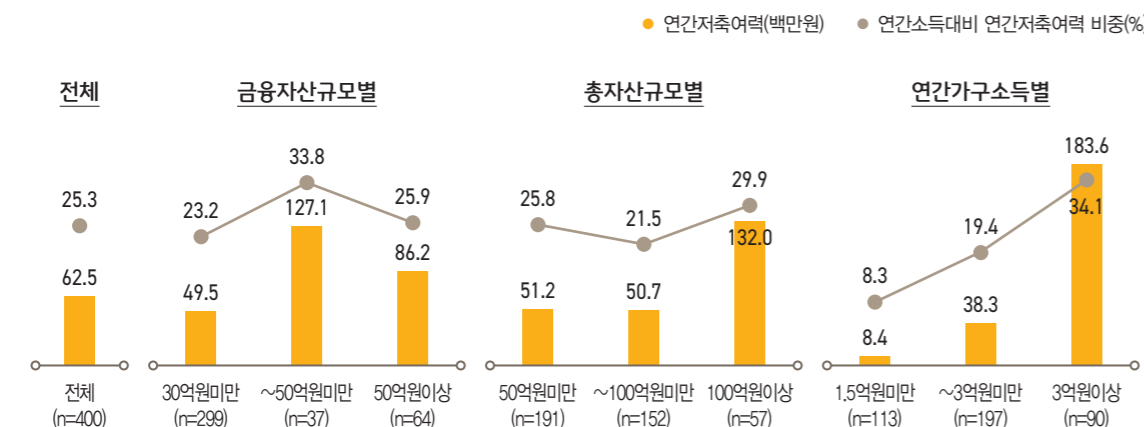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세 번째는 ‘저축여력’,
규모는 연 6,200만원 수준이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한 세 번째 동력은 ‘저축여력’이다. 저축여력은 가구를 기준으로 추정했다. 부자가구의 저축여력은 연평균 6,250만원으로 월평균 500만원 정도를 저축할 수 있었다. 부채를 보유한 경우 저축여력 중 일부가 부채 원금이나 이자 상환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축하는 금액은 줄어들었다.

연가구소득에 따른 저축여력을 살펴보면, 연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연간저축여력도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연가구소득 1억 5천만원미만 부자의 연간저축여력은 840만원으로 연가구소득 대비 8.3%인 반면, 연가구소득 3억 원이상 부자의 연간저축여력은 1억 8,360만원으로 연가구소득 대비 34.1%를 기록했다. 연가구소득이 늘어난 만큼 연간저축여력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금융자산규모나 총자산규모에 따라서는 보유한 자산규모가 클수록 연간저축여력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금융자산규모별로는 30~50억원미만 부자의 연간저축여력은 1억 2,710만원으로 연가구소득 대비 33.8%를 차지해 가장 높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총자산규모별로는 50~100억원미만 부자의 연간저축여력은 5,070만원으로 연가구소득 대비 21.5%를 차지해 가장 낮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연간저축여력은 5,120만원으로 연가구소득 대비 25.8%를 차지하며 총자산 50~100억원미만 부자(5,070만원) 보다 높은 저축여력을 가졌다.

그림 48 부자가구의 연간저축여력 (단위: 백만원, %)



주) 부자가구의 저축여력은 총소득에서 생활비의 소비지출과 세금 및 3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를 제외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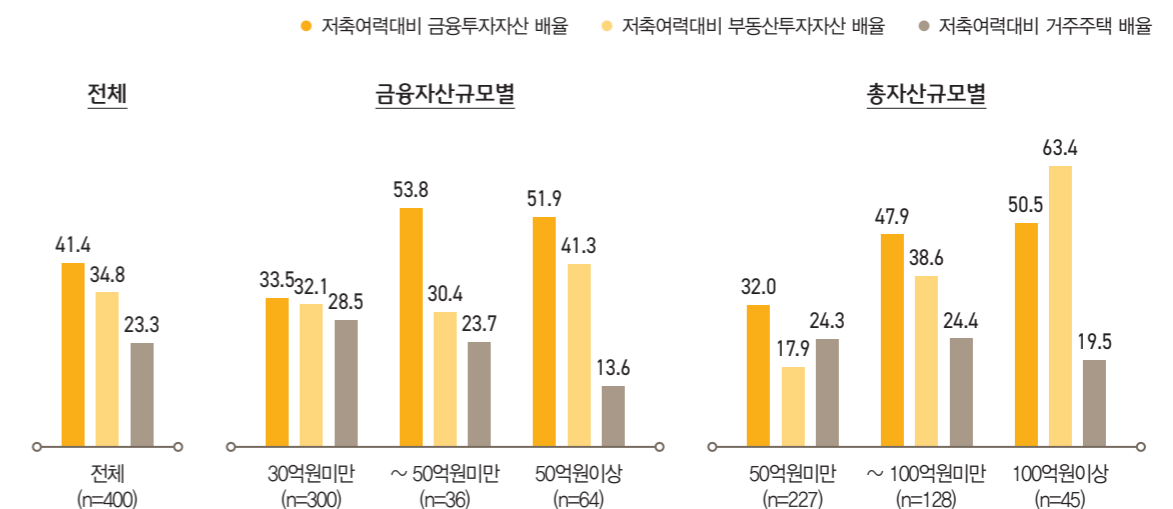
부자들이 활용하는 부의 성장 동력 네 번째는 ‘자산배분전략’,
총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자산 배분이 늘어난다

부자들이 부를 늘리는 데 활용하는 네 번째 동력은 ‘자산배분전략’이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에서 저축여력 대비 투자자산 비율을 통해 부자들의 자산 형성 과정을 살펴보았다.

부자들은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에 높게 배분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했다. 금융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 배분이 가장 높은 부자는 30~50억원미만 부자로 저축여력 대비 금융투자자산 비율이 54배로 나타났다. 이는 30억원미만 부자의 34배, 50억원이상 부자의 52배와 비교할 때 가장 높은 비율이다. 반면 부동산투자자산에 대한 저축여력 대비 비율은 30~50억원미만 부자(30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총자산규모별로는 자산이 많을수록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자산으로 이동하는 전략을 선호했다. 50억원미만 부자의 저축여력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32배로 부동산자산 비율(18배)에 비해 높았다. 50~100억원미만 부자도 저축여력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48배로 부동산자산 비율(39배)에 비해 높았다. 반면 100억원이상 부자는 저축여력 대비 부동산자산 비율이 63배로 금융자산 비율(50배)에 비해 높게 나타나 투자 전략의 변화를 엿볼 수 있었다.

그림 49 부자가구의 저축여력대비 투자자산 배율 (단위: 배)



이슈 ①

부자의 기준

01 | 부자의 자산 기준

02 | 부자의 자산외 기준



01 부자의 자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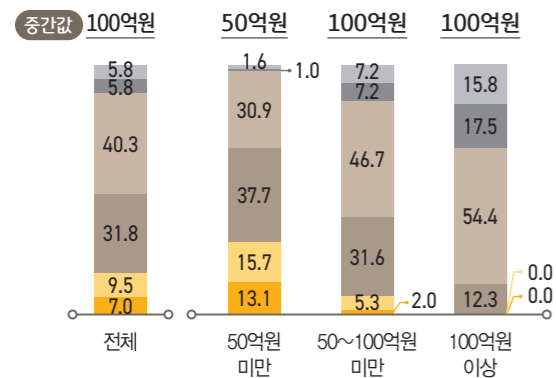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총자산은 '100억원', 최소 연소득은 '3억원'이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한의 자산 기준과 부자라면 갖춰야 할 자산외 기준은 무엇일까?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 부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추가로 실시했다.

먼저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살펴보면, 한국 부자는 부자라면 총자산이 '최소 100억원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부자 기준은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최소 50억원', 50억원이상 부자는 '최소 100억원'을 부자 기준으로 보았다. 이는 응답자의 분포를 하나의 값으로 대표하기 위해 사용한 중간값이다.

그림 50 총자산별 부자로 볼 수 있는 최소 자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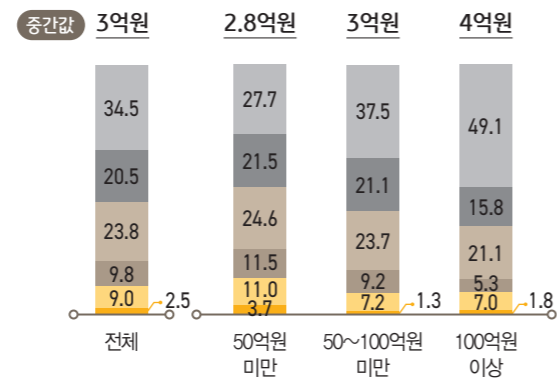
● 30억원미만 ● 30억원이상~50억원미만 ● 50억원이상~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300억원미만 ● 3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 500억원이상



주1)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을 모두 포함한 총자산 기준
주2)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100억원미만 n=152, 100억원이상 n=57

그림 51 총자산별 부자로 볼 수 있는 최소 소득 (단위: %)

● 1억원미만 ● 1억원~1억원 5천 미만 ● 1억원 5천~2억원미만
● 2억원~3억원미만 ● 3억원~5억원미만 ● 5억원이상



주) 근로/사업소득, 이자/금융소득, 임대소득을 모두 포함한 연 가구 소득 (세전)

부자들은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 자산 확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연소득은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2.8억원', 50~100억원 부자는 '3억원', 100억원이상 부자는 '4억원'으로 총자산규모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중간값은 '3억원'이었다.

한국 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대일 심층 인터뷰에서 부자의 자산 기준과 소득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자들은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 50억원, 그중 긴급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2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대출을 제외한 순자산은 100억원이 넘고, 유동성자산으로 현금성자산이 10억원 정도 있으며, 월소득이 2천만원 정도 된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금 없이 부동산만 있는 건 큰 의미가 없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이 2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해요" 등등. 총자산뿐만 아니라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자산을 부자의 자산 기준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52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소득 기준

33세
(20억)

부자의 반열에 들려면 최소 10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면 100억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부채 빼고, 부동산 포함 순자산 50억, 그 중 금융자산은 20억 정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거치 자금으로 들어가야 될 긴급 유동성 자금을 생각하면 20억원 정도... 그리고 노후에 쓸 수 있는 가용 현금 흐름이 최소 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봐요.

56세
(20억)

제가 생각할 때는 순자산(대출을 제외한 부동산, 금융자산 포함)이 그냥 100억은 넘어야지 그래도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유동 자산으로 현금성 자산이 10억정도 있고, 월 소득이 한 2천만원 정도 된다면 아마 크게 부담 없이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58세
(12억)

서울 관철은 지역에 2~30억 정도의 거주용 집이 한채가 있고, 현금, 주식, 펀드 등과 거주용 말고 다른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100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46세
(100억)

현금으로 갖고 있는, 언제든지 뺄 수 있는 현금 유동성이 20억 정도는 있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이 된다고 봐요. 현금 없이 부동산만 있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66세
(22억)

주1)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결과
주2) 응답자의 보유 자산은 금융자산 기준

”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부동산자산은 ‘50억원’,
 최소 금융자산은 ‘30억원’이다**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을 자산 종류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자산은 ‘최소 50억원’, 금융자산은 ‘최소 3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자산 기준 부자를 총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최소 30억원’, 50~100억원미만 부자는 ‘최소 50억원’의 부동산자산이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했다.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100억원이상’을 부자 기준으로 보았다.

금융자산 기준 부자의 경우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과반수 이상이 ‘10~30억원미만’, 중간값으로 산출하면 ‘최소 20억원’을 부자 기준으로 생각했다. 50~100억원미만 부자는 ‘최소 32.5억원’, 100억원이상 부자는 ‘최소 50억원’을 부자 기준으로 보았다.

금융자산을 10억원이상 보유한 ‘한국 부자’ 내에서도 부자라면 보유해야 할 최소 자산 기준에 대한 생각은 총자산 규모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기타자산은 ‘5억원’,
 이상적인 부동산자산 비율은 51.1%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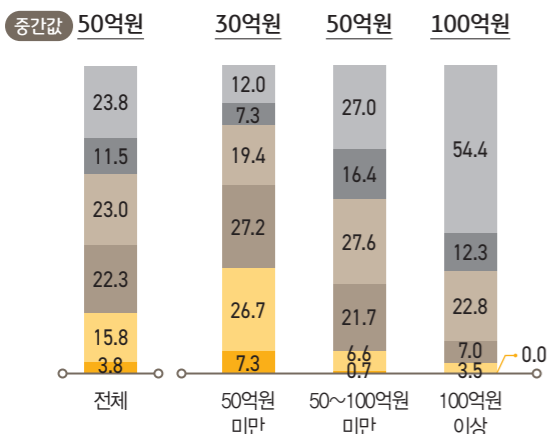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기타자산 기준은 ‘5억원’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기타자산은 회원권, 예술품, 금/보석, 요트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제외한 모든 투자자산을 의미한다. 앞선 기준과 마찬가지로 총자산규모가 클수록 기타자산 기준도 높았는데, 총자산 10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과반수에 가까운 49.1%가 최소 기타자산 기준으로 ‘10억원이상’을 선택했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라면 보유하고 있어야 할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기준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부자는 이러한 자산을 어떤 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생각할까?

부자들은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을 대략적으로 4:5:1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는 자산이 많은 다른 부자들에 비해 이상적인 금융자산 비율을 상대적으로 높은 37.8%로 추정했다. 이는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자산(유동성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들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그림 53 총자산별 부자의 최소 부동산자산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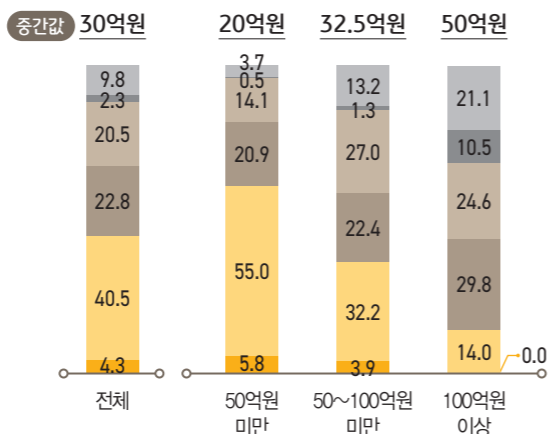
- 10억원미만
- 10억원~30억원미만
- 30억원~50억원미만
- 50억원~70억원미만
- 70억~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



주)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100억원미만 n=152, 100억원이상 n=57

그림 54 총자산별 부자의 최소 금융자산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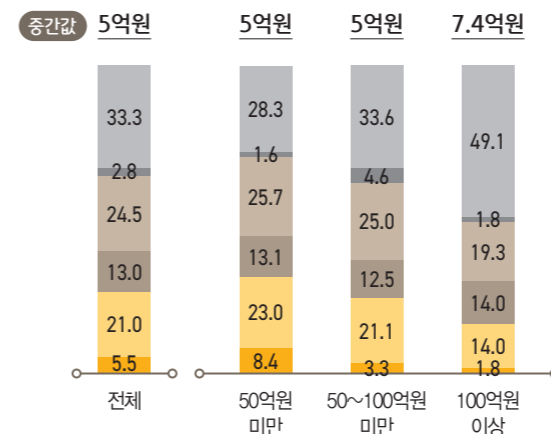
- 10억원미만
- 10억원~30억원미만
- 30억원~50억원미만
- 50억원~70억원미만
- 70억~100억원미만
- 100억원이상



주)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100억원미만 n=152, 100억원이상 n=57

그림 55 총자산별 부자의 최소 기타자산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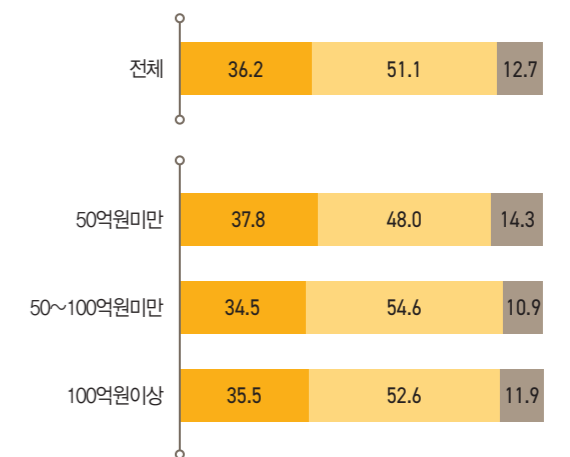
- 1억원미만
- 1억원~3억원미만
- 3억원~5억원미만
- 5억원~7억원미만
- 7억원~10억원미만
- 10억원이상



주) 회원권, 예술품, 금/보석, 요트 등 금융, 부동산 외 자산

그림 56 총자산별 이상적인 부자의 포트폴리오 (단위: %)

-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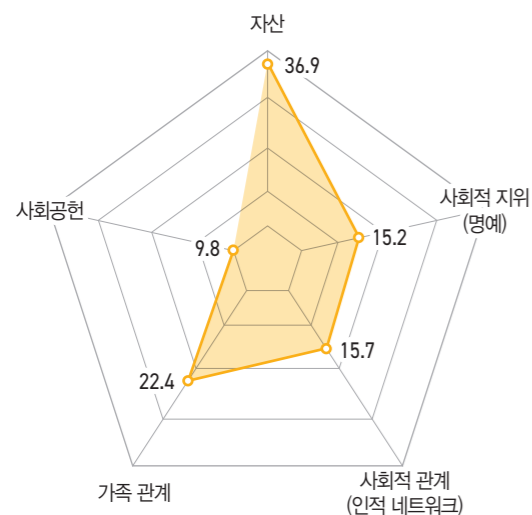
주)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100억원미만 n=152, 100억원이상 n=57

02 부자의 자산외 기준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자산외 요소 1순위는 '가족 관계',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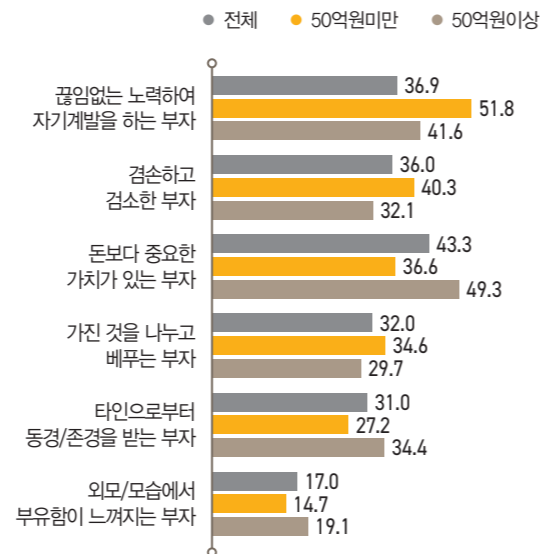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요소로 '자산', '사회적 지위', '사회적 관계', '가족 관계', '사회공헌' 키워드를 부자에게 제시하고, 항목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합이 100%가 되도록 작성을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자산'(36.9%)이었지만, 자산외 기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부자들이 꼽은 가장 중요한 자산외 기준은 '가족 관계'(22.4%), '사회적 관계'(15.7%), '사회적 지위'(15.2%), '사회공헌'(9.8%)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을 묻는 설문을 통해서도 부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외 기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1순위는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43.3%)라는 점이 흥미롭다.

그림 57 부자를 구성하는 요소별 중요도 (단위: %)



주) 전체 n=400

그림 58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 (복수응답, 단위: %)



주)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억원이상 n=209

총자산이 많을수록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적을수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를 꿈꾼다

총자산규모별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을 살펴보면,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49.3%)가 가장 많았다. 같은 응답을 선택한 50억원미만의 부자는 36.6%로 12.7%p 차이를 보였다. 반면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끊임없이 노력하며 자기계발을 하는 부자'(51.8%)를 선택했으며, 50억원이상 부자(41.6%) 대비 10.2%p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최소 총자산이 '100억원'인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의 경우 아직 축적된 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50억원이상 부자의 경우 부자 기준인 '100억원'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외 요소에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9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미지와 판단 기준

61세 (50억) 부자는 본인 생활에 전혀 걱정이 없고, 남을 위해서 부담없이 쓸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58세 (12억) 부자는 일단 여유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크게 부담 없이 하고 있으면서 또 가정 자체가 화목하고 가족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33세 (20억)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거, 다음에 걱정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

56세 (20억) 이제는 부의 사회적인 환원,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부자로서 책임감이 더 중요하죠.

66세 (22억)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 가짐이 있어야 그 사람이 부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부자중에서도 봉사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보기에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또 여유가 더 있어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46세 (100억) 부가 축적이 되면서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모임과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고, 그런 곳에서 자유롭게 정보 교류를 하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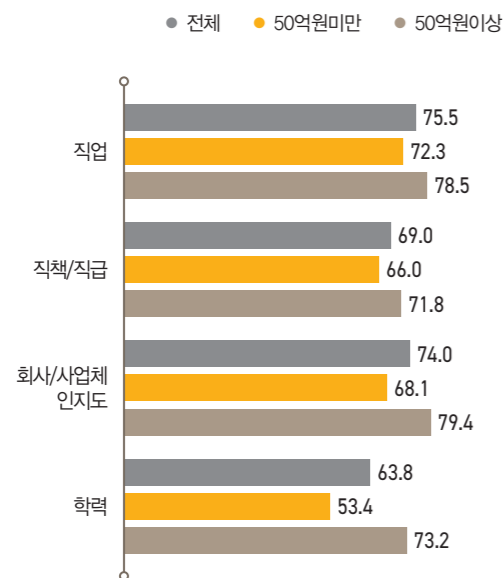
주1) 금융자산 10억원이상 고자산가 대상 일대일 심층 인터뷰 (In-depth Interview) 결과
주2) 응답자의 보유 자산은 금융자산 기준

부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지위는 '직업', 사회적 관계는 '비즈니스 모임'이다

한국 부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산외 기준 중 하나는 '사회적 지위'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직업'으로 조사되었다. 여기서 직업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정당한 경제 활동을 의미한다. "부라는 것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로 얻어야 가치가 있다" 등 인터뷰 결과에서도 이러한 부자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자산 50억원이상 부자는 '회사/사업체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79.4%로 가장 많았는데, 이 역시 부의 축적 과정의 정당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자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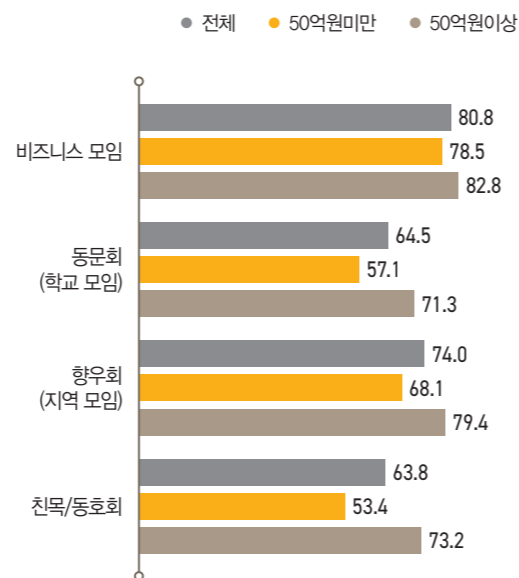
사회적 관계 측면에서는 '비즈니스 모임'(80.8%)을 총자산규모와 무관하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다.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들, 직장 생활을 할 때 만난 사람들을 여전히 만나고 있긴 하지만, 부의 규모가 달라진 후 부터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편하더라구요" 등 인터뷰 결과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부자들은 서로 비슷한 규모의 부를 축적했고, 그에 관해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임을 다른 사회적 관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림 60 총자산별 사회적 지위 중요 정도 (단위: %)



주1)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억원이상 n=209
주2)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응답 합산 기준

그림 61 총자산별 사회적 관계 중요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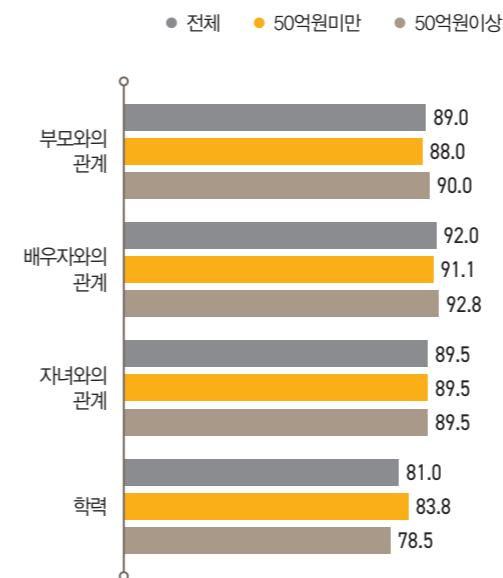
주1)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억원이상 n=209
주2)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응답 합산 기준

부자는 대체로 '가족 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고려한다

부자들은 '가족 관계'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관계 종류와 무관하게 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 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92.0%)로, 총자산 50억원미만 부자(91.1%)와 50억원이상(92.8%) 모두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어 '자녀와의 관계'(89.5%), '부모와의 관계'(89.0%)를 비슷한 중요도로 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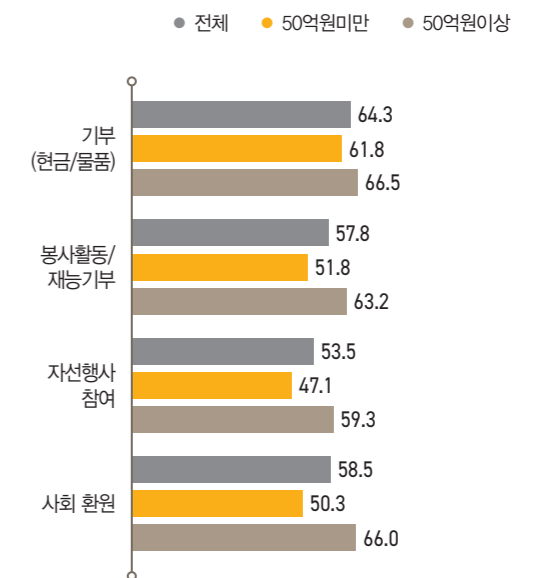
부자들이 '사회공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한 항목은 '현금 및 물품을 통한 기부 활동'(64.3%)으로 나타났다. '사회 환원'(58.5%)은 그 뒤를 이었다. 인터뷰 결과, 부자들은 "부의 사회적 환원, 소득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대대손손 집안이 탄탄한 분들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처럼 전혀 내색하지 않고 하더라구요" 등 부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회 환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은 총자산 50억원이상(66.0%)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림 62 총자산별 가족 관계 중요 정도 (단위: %)



주1)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억원이상 n=209
주2)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응답 합산 기준

그림 63 총자산별 사회공헌 중요 정도 (단위: %)



주1) 전체 n=400, 50억원미만 n=191, 50억원이상 n=209
주2) 각 항목에 대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라고 평가한 응답 합산 기준

이슈 2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01 | 한국 준부자 현황

02 | 한국 준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01 한국 준부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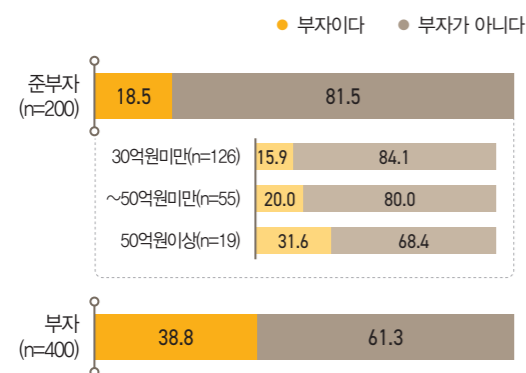
“**금융자산 5~10억원을 보유한 ‘한국 준부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18.5%에 불과했다**”

지금까지 ‘한국 부자’의 자산 보유 현황과 자산관리 행태, 부자에 대한 생각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한국 부자가 되기 위해 자산을 키워나가고 있는 대중 부유층(Mass Affluent)을 ‘한국 준부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특성을 살펴보려 한다. 한국 준부자는 ‘금융자산 5~1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으로, 금융자산 10억원이상 보유한 개인을 의미하는 ‘한국 부자’와 구분하였다.

한국 준부자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18.5%에 불과하여 아직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한국 부자의 38.8%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할 때 낮은 비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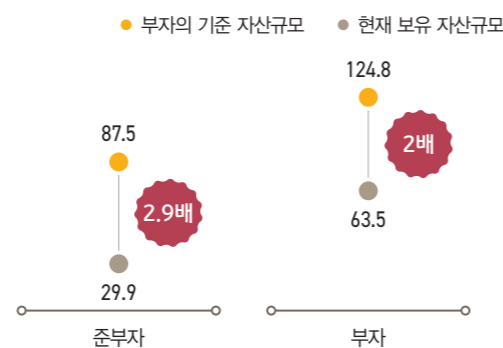
한국 준부자가 생각하는 부자 기준 자산규모는 87억 5천만원으로 현재 보유한 자산규모 대비 2.9배에 이르렀다. 한국 부자가 보유 자산 대비 부자 기준 자산규모가 2배인 것에 비해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볼 때 부자가 되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64 부자라고 자각하는지 여부 (단위: %)



주) 50억원이상 준부자의 경우 n=19로 해석에 유의

그림 65 부자의 기준이라 생각되는 자산 규모 (단위: 억원)



주1) 현재 보유자산 규모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규모
주2) 준부자 n=200, 부자 n=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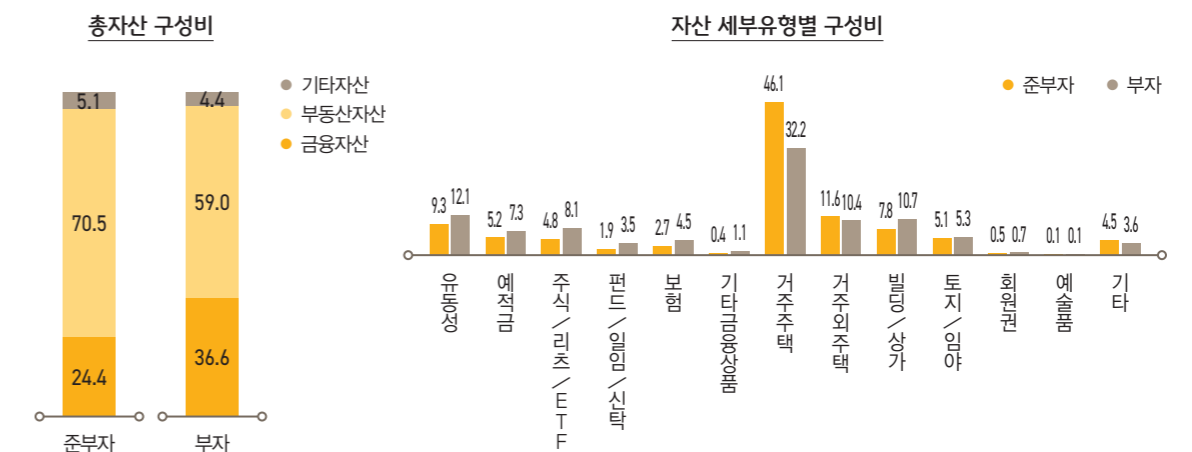
“**한국 준부자는 총자산 중 부동산자산 비중이 70%로 한국 부자 59%에 비해 크다**”

한국 준부자의 총자산 구조는 부동산자산이 70.5%로 가장 많고 금융자산 24.4%, 기타자산 5.1%를 차지했다. 한국 부자의 부동산자산 비중이 59.0%, 금융자산 36.6%, 기타자산 4.4%와 비교할 때 부동산자산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국 준부자의 총자산 포트폴리오는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46.1%로 가장 컸다. ‘거주외주택’이 11.6%를 차지하며 두 번째로 비중이 크고 ‘유동성자금’(9.3%), ‘빌딩/상가’(7.8%), ‘예적금’(5.2%) 순이었다. 한국 부자의 자산유형별 비중은 ‘거주주택’(32.2%), ‘유동성 자금’(12.1%), ‘빌딩/상가’(10.7%), ‘거주외주택’(10.4%) 순으로 준부자의 자산유형별 비중과 차이를 보였다. 총자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거주주택’으로 준부자와 부자 둘 다 비중이 높았다.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은 준부자에서는 ‘거주외주택’으로 한국 부자의 네 번째에 해당되나, 준부자에서 세번째로 비중이 큰 ‘유동성 자금’은 한국 부자의 경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 순위가 역전되었다.

세부자산유형별 비중에서 준부자와 부자의 가장 큰 차이는 총자산 중 거주주택 비중이다. 한국 준부자의 경우 총자산 중 거주주택에 자산의 절반 정도가 집중되어 세부자산별로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킬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고 있었다.

그림 66 한국 준부자의 총자산 및 세부유형별 구성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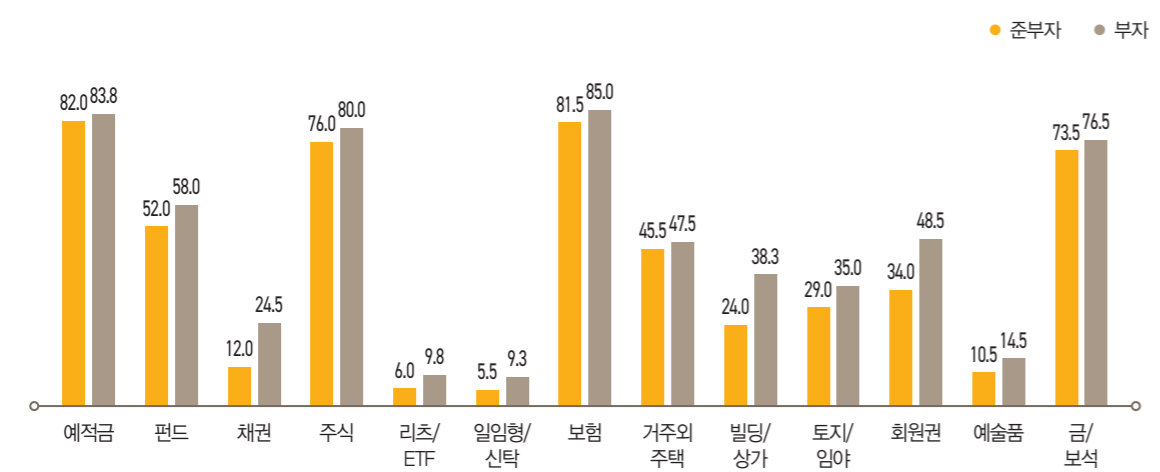
주1) 유동성 금융자산 = 현금 + 수시입출금
주2) 준부자 n=200, 부자 n=400

”
준부자는 자산 중 예적금, 보험, 주식 보유율이 높고, 부자의 자산 보유율 순위도 이와 같았다

한국 준비자는 어떤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율을 통해 살펴보았다. 준비자의 보유율이 높은 자산은 ‘예적금’(82.0%), ‘보험’(81.5%), ‘주식’(76.0%), ‘금/보석 등’(73.5%)이 70% 이상을 차지했다. 준비자의 보유율이 높은 자산 유형은 부자의 보유율 상위 자산 유형과 같았다. ‘펀드’(52.0%)와 ‘거주외주택’(45.5%)이 다음으로 보유율이 높아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보유하고 있었다. 펀드와 거주외주택 보유율은 부자의 보유율도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준부자와 부자 간 보유율 차이가 큰 자산은 ‘회원권’, ‘빌딩/상가’, ‘채권’이다. ‘회원권’은 준비자 34.0%가 보유한 반면 부자의 경우 48.5%가 보유하여 14.5%p 더 많았고, ‘빌딩/상가’는 준비자 24.0%가 보유한 반면 부자의 38.3%가 보유하여 14.3%p 차이를 보였다. ‘채권’은 준비자 12.0%인 반면 부자 24.5%가 보유하여 12.5%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자산 보유율 차이는 투자할 수 있는 자산여력에 따른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며, 자산에 대한 선호도나 관심도에 따른 영향도 일부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지/임야’나 ‘펀드’ 보유율에서도 준비자와 부자 간 차이를 보여, 부자가 준비자보다 6.0%p 높은 보유율을 나타냈다.

그림 67 한국 준비자의 자산 유형별 보유율 (단위: %)



주1) 보유율 100% 현금, 수시일출금, 거주주택 제외
주2) 준비자 n=200, 부자 n=400

”
준부자가 현재의 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높은 원천은 ‘사업소득’이다

준부자가 현재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도가 큰 원천은 사업소득, 부동산투자에 의한 이익, 근로소득의 순으로 나타났다. 준비자의 34.0%는 현재의 부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큰 원천으로 노동에 의한 ‘사업소득’을 꼽고 있다.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에 의한 이익으로 부를 형성한 경우가 22.0%, 근로소득에 의한 경우가 21.0%를 차지했다. 그 외 ‘상속/증여’에 의한 경우가 14.0%, ‘금융투자’ 이익에 의한 경우가 9.0%로 가장 적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자의 경우 ‘사업소득’을 통해 현재의 부를 축적했다는 응답이 41.8%로 준비자에 비해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동산투자’에 의한 이익, ‘상속/증여’, ‘금융투자’에 의한 이익, ‘근로소득’ 순으로 기여도를 꼽았다. ‘금융투자’에 의한 이익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여도는 준비자와 부자 간 차이를 보였다.

부를 형성하는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준비자의 경우 최소 평균 5억 2,400만원이라 생각했고, 평균 42세에 이를 모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자의 경우 종잣돈은 최소 평균 8억 300만원이라고 응답하여 준비자에 비해 3억 원 정도 많았으나, 최소 종잣돈을 마련한 시기는 평균 42세로 비슷했다.

그림 68 준비자의 부의 원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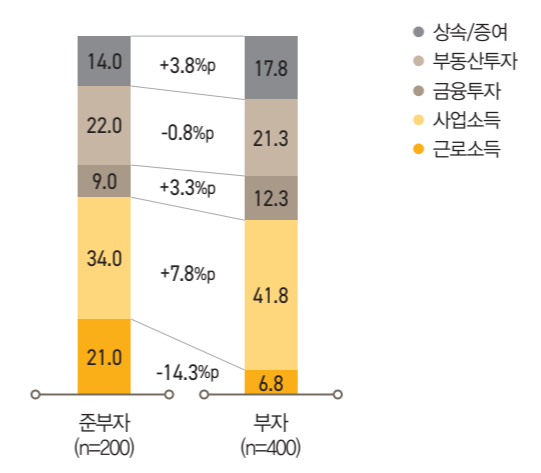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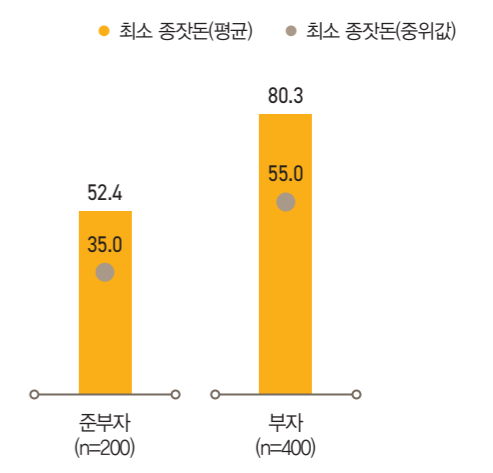


그림 69 준비자의 종잣돈 규모 (단위: 천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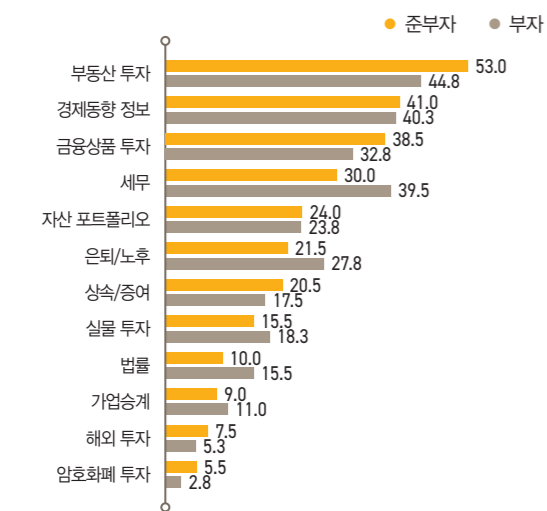
02 한국 준부자의 금융투자 행태

최근 준부자가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는 '부동산투자', '경제동향', '금융상품투자'다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를 알아보았다. 최근 준부자가 관심 있는 분야는 '부동산투자', '경제동향', '금융상품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무'나 '자산 포트폴리오', '은퇴/노후', '상속/증여'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다. 부자가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와 차이가 큰 경우는 '부동산투자', '금융상품투자', '세무', '은퇴/노후', '법률' 분야로, 부동산투자와 금융상품투자에 대한 관심도는 준부자가 높은 반면 '세무', '은퇴/노후', '법률' 분야는 부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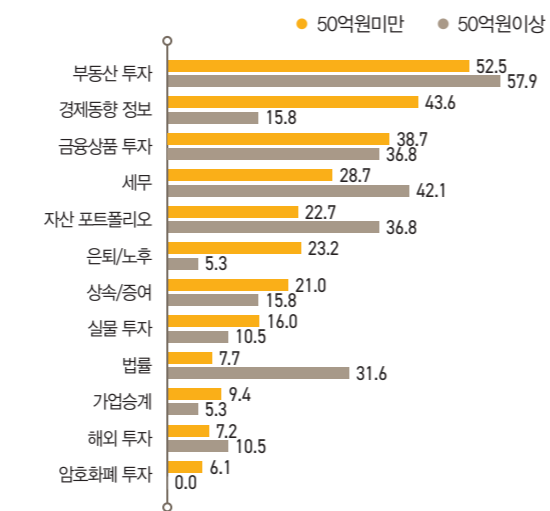
준부자 중에서도 총자산규모별로 관심 있는 자산관리 분야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자산이 적은 50억원미만 준부자가 50억원이상 준부자에 비해 관심이 큰 분야는 '경제동향'과 '은퇴/노후'였다. 총자산이 적은 준부자가 부를 늘리기 위한 정보 수집에 적극적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총자산이 많은 50억원이상 준부자가 관심이 큰 분야는 '법률'과 '자산 포트폴리오', '세무' 분야였다.

그림 70 자산관리 관심사 (1+2+3순위, 단위: %)



주) 준부자 n=200, 부자 n=400

그림 71 총자산규모별 자산관리 관심사 (1+2+3순위,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미만 n=181, 총자산 50억원이상 n=19(해석상 유의)

한국 준부자는 부자보다 '안정 지향적' 투자 성향이 강하고, 투자 지식수준에 대해서도 낮다고 생각한다

한국 준부자의 자산관리 및 운용 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투자 성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준부자의 투자 성향은 '안정형'(8.0%)과 '안정추구형'(45.5%)을 합한 '안정 지향적' 성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53.5%로 절반을 넘었다. 부자의 '안정 지향적' 성향 비중이 46.6%인 데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준부자의 경우 '공격투자형'(1.5%)과 '적극투자형'(20.0%)을 합한 '공격 지향적' 성향의 비율이 21.5%로 부자(27.7%)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격 지향적 투자 성향이 약했다. 전반적으로 준부자의 투자 성향이 부자에 비해 안정 지향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준부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투자 지식수준을 물어보았다. 준부자는 스스로를 주식과 채권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낮은 지식수준'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49.0%로 가장 많았다.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지식수준'이라 응답한 경우는 45.0%로 두 번째로 많았다. 부자의 경우 스스로의 투자 지식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응답한 경우가 51.3%로 가장 많고 '낮은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가 41.3%인 것과 비교하면, 준부자가 부자보다 자신의 투자 지식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했다.

그림 72 준부자의 금융투자성향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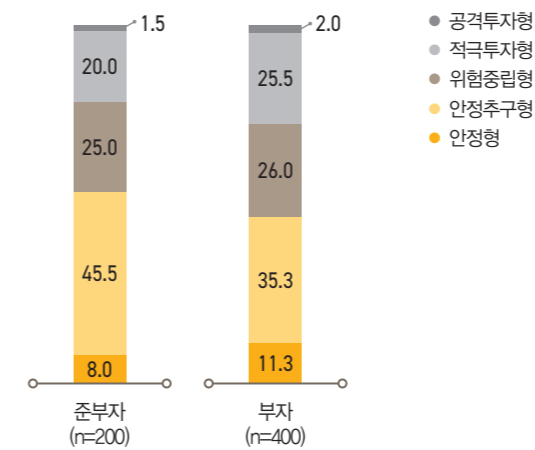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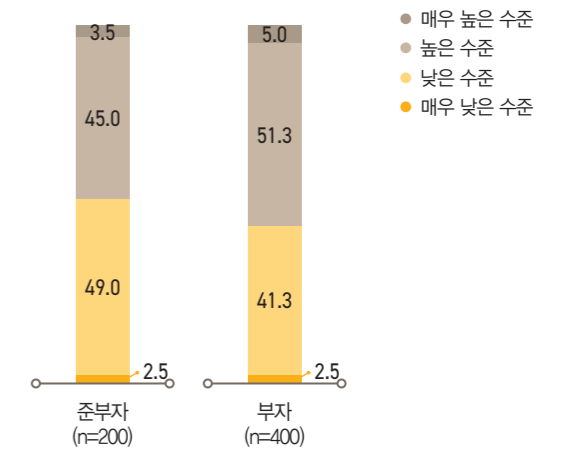


그림 73 준부자의 금융투자 지식수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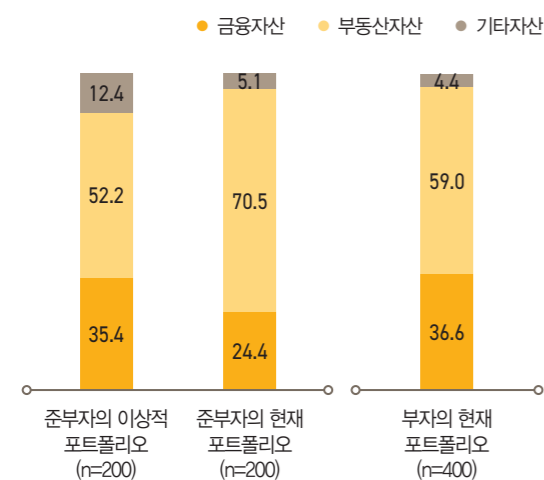


준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비율이 4 : 5 : 1이다

한국 준비자의 자산 운용 전략 목표를 파악하기 위해 부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질문하였다. 준비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이상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비율이 4 : 5 : 1이었다. 이는 준비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인 금융자산 24.4%, 부동산자산 70.5%, 기타자산 5.1%와 비교하면 격차가 컸다. 준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총자산 포트폴리오와 부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인 금융자산 36.6%, 부동산자산 59.0%, 기타자산 4.4%는 기타자산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준비자는 점차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구성비를 추구하여 금융자산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자산관리 행동을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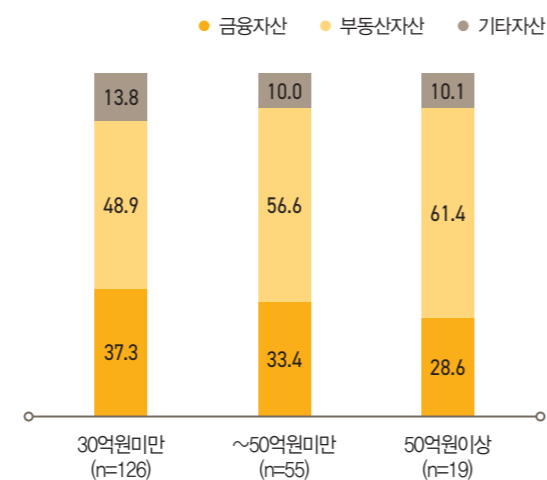
준부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자산규모가 클수록 부동산자산 비중은 증가하고 금융자산 비중은 감소했다. 총자산 30억원미만 준비자가 금융자산 비중을 37.3%로 응답한 데 비해 50억원이상 준비자는 28.6%로 응답했다. 총자산 30억원미만 준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가 금융자산 37.3%, 부동산자산 48.9%인데 비해 총자산 50억원이상 준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포트폴리오는 금융자산 28.6%, 부동산자산 61.4%로 구성비 차이가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총자산이 많은 50억원이상 준비자의 경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비율을 3 : 6 : 1로 응답하여 부자의 현재 총자산 포트폴리오와도 격차를 보였다.

그림 74 준비자의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단위: %)



주) 기타자산에는 회원권, 예술품, 금/보석 등 포함

그림 75 총자산규모별 이상적인 포트폴리오 (단위: %)



주) 총자산 50억원이상 준비자의 경우 n=19로 해석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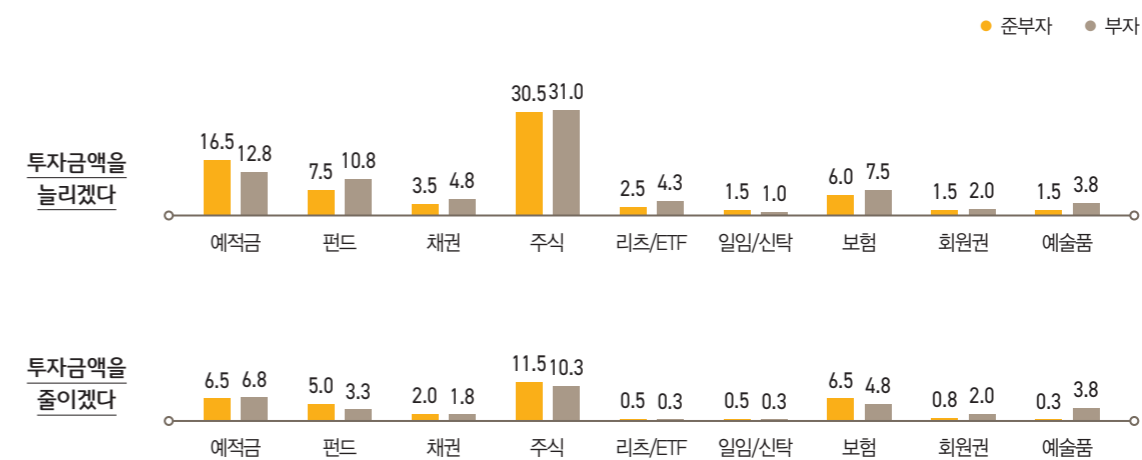
준부자는 주식투자를 늘리겠다는 의견과 줄이겠다는 의견 둘 다 취하며 양극적 행동을 보일 것이다

한국 준비자가 향후 자산 운용에서 투자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과 '예적금'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자산에 대해 '투자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이 '투자금액을 줄이겠다'는 응답보다 비중이 큰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부자의 경우 향후 투자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과 '펀드'이며, 준비자의 자산 운용과 비교할 때 '펀드' 투자를 늘리고자 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준부자의 향후 자산 운용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이 30.5%로 가장 많고, '예적금'이 1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펀드'(7.5%), '보험'(6.0%) 순이었다. 부자의 경우도 향후 투자금액을 늘리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31.0%)이 가장 많고, '예적금'(12.8%), '펀드'(10.8%), '보험'(7.5%) 순으로 준비자와 같았다.

준부자가 향후 자산 운용에서 투자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자산도 '주식'이 11.5%로 가장 많고, '예적금'과 '보험'이 각각 6.5%로 뒤를 이었다. 그 외 '펀드'가 5.0%를 차지했다. 부자의 경우 역시 향후 투자금액을 줄이고자 하는 자산은 '주식'(10.3%)이 가장 많고, '예적금'(6.8%), '보험'(4.8%), '예술품'(3.8%) 순으로 준비자와 같았다.

그림 76 자산유형별 향후 운용 방향 (단위: %)



주1) 각 자산유형별로 '투자금액을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그래프에서 제외
주2) 각 자산유형별로 준비자 n=200, 부자 n=400

참고1 설문조사 개요

본 보고서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주관으로 전문 시장조사기관을 통해 전국의 금융자산 10억원이상 '한국 부자'와 금융자산 5~10억원미만 '한국 준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

조사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자산 1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금융자산 5억원이상~1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만20세이상 금융의사결정자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면접조사 (Face to face)
조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6월 1일 ~ 7월 16일
표본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600명 - 금융자산 10억원이상 400명 - 금융자산 5억원이상~10억원미만 200명
표본 추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할당표본추출(Quota Sampling) (수도권/비수도권, 자산규모별 Soft Quota)

참고2 용어정의

- **한국 부자:**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
- **한국 준부자:** 금융자산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부자 분류**
 - 자산가: 금융자산 10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고자산가: 금융자산 1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을 보유한 개인
 - 초고자산가: 금융자산 300억원이상을 보유한 개인
- **총자산:** 금융자산 + 부동산자산 + 기타자산

● 금융자산 유형

- 유동성 자산: 현금, 수시입출금, MMF/MMT
- ETF(상장지수펀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
- ELS(주가연계증권): 특정 주식 또는 다수 주식의 가격이나 주가지수 수치의 변동에 따라 지급 이익이 결정되는 증권
- DLS(파생결합증권): 이자율, 통화(환율), 실물자산(금, 원유 등), 신용위험(기업 신용등급의 변동, 파산 등)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사전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만기 지급액이 결정되는 증권
- 랩어카운트(일임형상품):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로 투자자가 맡긴 예비자산을 투자일임계약 체결 후 투자자의 투자성향, 투자경험, 자산규모 등을 감안해 운용하는 자산관리서비스
- 리츠: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그 운용수익 및 매각수익을 배당 또는 잔여 재산분배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자산 유형

- 거주용 부동산: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
- 거주외 부동산: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아파트/오피스텔, 빌딩/상가, 토지/임야 등 부동산

● 기타자산: 예술품, 금, 보석, 회원권 등 자산의 현재 시가

● 금융 지식수준 분류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 정도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 정도만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 투자성향 분류

- 안정형: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투자 원금의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 위험중립형: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투자 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 공격투자형: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적극 수용

발행인 윤종규
편집인 조영서
발행처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길 26)
연구자 황원경(wk.hwang@kbf.com), 김진성(jins.kim@kbf.com), 손광표(kp.son@kbf.com)
발행일 2021년 11월 15일
조사기관 (주)컨슈머인사이트
편집인쇄 (주)나눔커뮤니케이션

본 저작물은 KB금융그룹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B금융그룹의 승인 없이 본 책자의 내용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